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6
vol.146



Cart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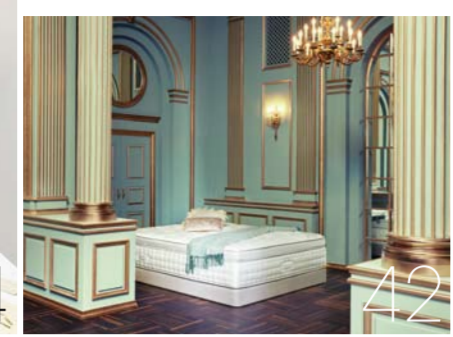
CLÉ DE CARTIER





The Burberry Artisans
브라이들 백의 이탈리아인 패턴 메이커, 피에로 칼로시





44

42

Style 조선일보

SEPTEMBER 2016

TODS

표지에 등장한 제품은 이탈리아 브랜드 토즈의 2016 F/W 더블 T(Double T) 백이다. 토즈의 시그니처 아이템이 된 웨이브 백과 마찬가지로 마구와 인장을 만드는 전통 기법인 스텔라리움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장인들의 수작업으로 리본 꼬임 장식의 가방 보드에 적용해 더욱 정교하다. 문의 02-3438-6008



28



10

- 14 **거침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말레니얼 세대, 딱딱했던 미술계 지형도 바꾸놓을까?** 세계적인 아트 경매업체 소더비와 한류 아이콘 빅뱅의 탐이 손을 잡았다. 오는 10월 3일 홍콩에서 열리는 소더비 경매에 탐이 큐레이터로 참여해 아시아 현대미술품 25여 점을 내놓는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구자 김환기 화백 집안의 후손이기도 한 탐이 아트 애호가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만, 큐레이터라니, 파격 아니냐는 시선이 쏠리고 있다.
- 18 **MAN'S NEW LOOK** 패션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한동안 패션계를 지배한 미니멀리즘이 중심이었던 무대는 가고, 그보다 더 앞선 시대로 타임 슬립한 것.
- 20 **SCENE STEALER 2016 F/W**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패션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을 소개한다. 당신이 첫눈에 반한 광고 비주얼은?
- 22 **DIAMOND DREAMS** 반짝이는 빛만으로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깃털처럼 피부 위에 살며시 자리 잡을, 고귀한 살렘을 전하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
- 24 **COLOR CODE** 좀 더 특별한 시계를 찾고 있다면, 워치 & 주얼리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강렬한 컬러를 입힌 워치에 주목하자. 당신의 손목 위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 26 **NEW STEP UP**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트렌드 전선에선, 지금 가장 핫한 럭셔리 하우스의 뉴 남성 스니커즈.
- 28 **LOVE YOUR STYLE** 또다시 새로운 시작. 복고풍, 보헤미안, 그라피 패턴, 쇼킹 컬러... 빛나는 유행과 나만의 스타일을 맘껏 즐기고 사랑할 시간이 왔다.
- 37 **MOISTURE DELIVERY** 유달리 촉촉했던 폭염을 견뎌낸 피부는 말 그대로 지칠 대로 지쳤을 터, 데코르테의 리포소 트리트먼트 리퀴드가 당신의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 38 **EDITOR'S PICK** 건조한 피부에 꼭 필요한 보습 제품부터, 이번 시즌 놓쳐선 안 될 신제품까지, <스타일 조선일보>가 추천하는 가을 화장대 필수 아이템.
- 39 **MAGICAL OIL** 이 핑크빛 오일은 직접 발라줘야 진가를 알 수 있다.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플레드보 보떼에서 선보이는 첫 오일 인 만큼 독자적인 기술력, 진귀한 성분을 아낌없이 담았기 때문.
- 40 **LUXURY SPORTISM** 편하게 입으면서도 럭셔리한 맛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브랜드 페이(Fay). 본래 소방관들이 주로 입던 포버튼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답게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아우터를 새롭게 선보인다.
- 41 **SPARKLE ON YOUR DAY** 어느덧 성숙한 여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여배우 박신혜,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뮤즈가 된 그녀가 화보를 통해 순수한 아름다움과 시크함을 오가는 두 가지 변전 매력을 뽐냈다.
- 42 **THE MASTERPIECE IN YOUR LIFE** 1870년부터 한 세기 반 동안 침대 역사를 만들어온 시몬스(SIMMONS)의 마스터피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
- 44 **URBAN SPIRIT** 지난 6월, 몽블랑의 새로운 레더 컬렉션 '어반 스피릿'의 론칭 행사가 개최되었다. 몽블랑에 보다 트렌디한 스타일을 불어넣을 진취적인 컬렉션이다. 몽블랑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레더 컬렉션의 데뷔 현장을 취재했다.

Style 조선일보

Issue.146 September 2016



FERRAGAMO.COM

Salvatore Ferragamo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에디터 | 권유진 yjkwon@chosun.com
 에디터 | 이지연 easyear@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어시스턴트 | 김수민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박승현 shpark@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 · 재판 | 새빛 그래픽스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사당로 413
 현대 하이패션은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임의로 발행됩니다.



stylechosun.com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를, 실질적인 정보의 럭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까이 만들어드립니다. 럭셔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Jewel
STYLISH MATCH

서로 다르기에 더욱 멋스러운,
주얼리와 가죽,
실크의 스타일리시한 조우.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화이트 골드 링 2개와 블랙 세라믹 링을 실크 브레이슬릿에 더해 여성스러우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러브 코드 브레이슬릿 1백20만원대 **카르띠에**, 고급 가죽 브레이슬릿이 멋스러운 팔로마 파카소 노트 실크 브레이스 브레이슬릿 50만원대 **타파니**,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나비 매듭을 달은 매력적인 핑크 골드 버클에 블랙 레더 케이블을 매치한 80 브레이슬릿 1천1백만원대, 화이트 골드 버클에 블루 레더 케이블을 연결한 80 브레이슬릿 3백만원대 모두 **프렌드**, 스타일몬스 스틸 소재의 카라비너 연결 고리와 블랙 컬러 우븐 레더의 조화가 돋보이는 브레이슬릿 2만원 **몽발랑**, 에디터 권유진

장신구 박지영

Fashion
WELCOME TO SEOUL!

최근 한국, 그리고 서울에 새롭게 자리를 잡으려는 브랜드들의 열기가 뜨겁다.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와 편집숍에서 우트 있는 디자인으로 열성 팬을 거느린 안야 힌드마치(Anya Hindmarch)가 갤러리아 백화점 이스트 3층에 단독 부티크를 오픈했다. 어떤 아이템에 부착해도 새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스타커 컬렉션부터 스마일 이모티콘과 동그란 눈동자의 움직이는 시선을 사로잡는 클러치 백까지, 구매욕을 자극하는 아이টে들로 가득 채웠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디자이너 브랜드 안토니오 마라스의 재탄생도 반가운 소식 중 하나. 현대백화점 입구점점 3층에 단독 매장을 오픈하며 새 출발을 알렸는데, 과감하고 드라마틱한 컬렉션, 안토니오 마라스의 세컨드 브랜드 이졸라 마라스까지 만나볼 수 있다. 유럽에서도 만나기 어려운 하이엔드 백 브랜드 모이나(MOYNAT)와 폰타나 밀라노 1915(Fontana Milano 1915)도 서울에서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 자리를 잡았다. 장충동 서문신라 호텔에 부티크를 오픈한 모이나는 1849년 폴린 모이나가 설립해 파리지앵의 우아한 여행 철학을 담은 프랑스의 백과 트렁크를 소개하며 명사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남성과 여성 라인은 물론 한국을 위한 익스클루시브 아이템인 마들렌 클러치(Madeleine Clutch)도 선보인다. 장충동 중심에 단독 플래그십 스토어를 오픈하며 과감한 시작을 알린 폰타나 밀라노 1915는 1915년 구도 피에라치가 설립해 3세대 이어온 이탈리아의 가족 경영 럭셔리 브랜드로, 시그처 아이템인 에이 백(A Bag)이 대표작이다. 밀라노에 이어 전 세계 두 번째 플래그십 스토어이며 창업자의 손녀인 실비아 마사카 이모는 디자이너 스튜디오에서 인테리어를 맡아 들뜬, 피에로 포라 세티, 아코포 포자니의 작품까지 만나볼 수 있어 더욱 매력적이다. 에디터 배미진



안야 힌드마치
폰타나 밀라노 1915

모이나



안토니오 마라스

모이나



Beauty
HAND ANTI-AGING

패시셀 안티에이징 제품과 각종 피부과 시술을 통해 동안 페이스를 유지할지라도, 결국 손 주름에서 숨길 수 없는 나이가 드러나기 마련이다. 미리 관리하지 않으면 때를 놓치기 쉬운 손 피부 관리. 이제는 스크리버와 미친기자로 손 피부도 안티에이징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 촉촉한 핸드크림뿐 아니라 핸드 마스크, 마사지 디바이스 등 오랫동안 피부 관리를 위해 출시된 다양한 핸드 케어 아이템을 소개한다. 에디터 이지연

(중요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7백20개의 다이아몬드 캐럿 커먼 링을 통해 미세 전류가 흐르는 백금 플라 **리파카리엔티**, 일곱줄 아 라 팔레타와 영구리, 그리고 손까지 원하는 부위에 물리하면 문신 근육은 물론, 피부 탄력도를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다(39만8천원), 침술기 전 **이베다 핸드 밀러브 나이트 리 뉴업 세럼**을 손에 듬뿍 바르면, 다음 날 아침까지 촉촉함과 매끄러움이 유지된다(30ml 4만2천원), 향수 애호가들에게 사랑받는 **바이레드 진지우터 핸드크림**, 촉촉한 보습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물론, 바르는 즉시 파우더는 스마일한 패미 황과 레몬의 상쾌한 향이 특징이다(30ml 4만5천원), 피부의 뚝을 각질을 제거해주는 백송이와 살구씨 추출물이 함유된 **베라키이 세린 핸드 스크럽**(220g 세트 가격 7만원대), 기존 크림을 커뷰이 사용하는 **빈디 캔들 마사주**는 40°C가 되면 발 타닥에 서 오일 제형으로 녹는다. 발을 끈 후 적당량을 손에 덮어 가볍게 마사지해주면 톤다(120g 9만원대), 최고 품질의 엑스트라 버진 오일로 만들어 건조하거나 민감한 피부에 더욱 효과적이다(노벨린의 **시모네 올리오 올리바 비누**(100g 4만8천원), 갈라지고 트는 약간성 피부를 위한 고보습 핸드 마스크 **비스타 디 민도틀레**(50g 7만8천원), 깨끗하게 씻은 손에 충분히 바르면 후 정장을 착용하면 보다 집중적인 케어를 할 수 있다. **헤이슬 레저렉션 이모티비 핸드 크림**은 손과 손톱 주위의 큐티클도 촉촉하게 유지해준다(75ml 3만원), 최근 한국에 등장한 **벨리 포드 콘크리트 핸드크림**은 파파이도 보도 용도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 캐미컬 수액이 함유된 이 크림은 피부 표면의 수분 양을 강화해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준다(75ml 5만8천원).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Drink
가을을 풍요롭게 해주는 각양각색 프리미엄 주류

별별다워가 가을을 부르던 여름에 못사람들의 지친 상신을 달래는 데 한몫을 톡톡히 한 시원한 맥주를 비롯한 각종 주류는 가을을 훨씬 풍요롭게 해줄 재미를 갖춘 듯하다. 알싸한 위스키, 상쾌한 샴페인, 부드러운 흑맥주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다채로운 프리미엄 주류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다. 가장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주류는 역시 맥주일 것이다. 영소 라벨이 독특한 채코의 흑맥주 코젤코는 최근 부드러운 맛과 1백42년에 걸쳐 무르익은 정통성을 강조한 '뉴 트레디셔널 패키징'을 선보였다. 유럽의 맥주 집지(서버 커리어)에서 8차례나 최고 맥주로 선정된 바 있으며, 500ml 캔과 보틀 형태로 나와 있다. 블렌디드 위스키의 대명사 발렌타인은 5세대 마스터 블렌더 샌디 하슬롭의 아상자 '발렌타인 마스터스' 뉴 패키지로 호응을 얻고 있다. 새로운 보틀 디자인을 내세운 이 위스키는 한국인의 애정을 듬뿍 받은 특유의 부드러움, 플로럴 향과 오렌지 향, 그리고 달달한 바닐라 향의 여운이 특징이다. 광고한 팬들을 거느린 로얄 샬루트는 멋진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한정판 에디션도 내놓았다. 네이비 색상의 캔버스 천을 감싸는 가죽 토트백 끈을 길게 풀어 병을 걸어두거나 야외에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로얄 샬루트 빌 엠버그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실용적이면서도 세련된 토트백의 매력으로도 불리는 제품이다. 싱글 몰트위스키 브랜드 맥캘란은 세리 오코와 파인 오코의 장점만 그로아어 완성했다는 12년 더블 캐스크를 선보였다. 유람선 세리 오코의 풍부한 과일 향과 개성 강한 스파이스를 바탕으로 달콤한 미국산 세리 오코까지 기미해 균형감을 자랑한다. 흑시 아주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샴페인을 찾는다면 2차 절정기를 맞이했다는 '동 페라농 P2 1998' 빈티지를 주목할 만하다. 요즘 국내에서도 팬층이 한층 더 두꺼워진 강력한 브랜드 동 페라농의 아상자이다. 에디터 고성현



코젤코

동 페라농

발렌타인

맥캘란

로얄 샬루트

Exhibition
영국 크리에이터 애니시 커퓨터+토머스 헤더윅, 서울을 수놓다

다문화적 개성을 바탕으로 창의 산업의 대표 주자로 두각을 드러낸 영국의 창조적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전시가 열려 주목된다. 그중 하나는 생츠킨 조각가 토머스의 가상 반열에 오른 애니시 커퓨터 개인전(Gathering Clouds). 오는 10월 31일까지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이 전시에서는 기하학적 형태와 반사되는 표면의 결합이 인상적인 신작인 '트윈스트' 시리즈를 비롯해 19점을 감상할 수 있다. 인도 몸바이 출신이지만 1973년 영국으로 이주한 그는 베니스 비엔날레에 영국 대표 작가로 참여하고 권위 높은 테너상을 받았으며 런던올림픽을 기념하는 조형물을 만드는 등 주로 영국을 무대로 활동해온 세계적인 스타 작가다. 인도와 유럽의 정채성을 동시에 보유해 명성적이면서도 단순미가 돋보이는 추상 조각의 대표 주자다. 손에 잡히는 물성을 활용해 비정형의 작품을 만들어냄으로써 정성적인 사유를 담아가는 그의 예술 언어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서울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성황리에 열리고 있는 (헤더윅 스튜디오: 세상을 변화시키는 발상)의 주인공인 토머스 헤더윅도 영국이 자랑하는 글로벌 아티스트다. 런던 패딩턴의 명물로 다리가 동글게 구부러지면서 팔각형 원통 모양이 되는 '폴링 브리지', 14만 개가 넘는 유리구슬을 동원한 설치 작품 '블리키기엔', 25만 개 씨앗을 담은 6만6천 개 투명한 박을 이용해 '씨앗 대성당'으로 불린 2010년 상하이 엑스포 영국관 등 다양한 작품으로 영국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불린다. <스타일 조션앙보>에 연재했던 영국 크리에이터들과의 실용 인터뷰 시리즈 '디코딩 UK 크리에이티브'에(Decoding UK Creativity)에서 2009년 국내 독자들에게는 처음으로 심도 있게 소개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7년이 흐른 지금, 유럽 뿐 아니라 아시아까지 이루어진 세계적인 아티스트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 헤더윅의 다채로운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이 전시는 10월 23일까지다.



Ermenegildo Zegna



화려함과 우아함을 동시에 자아내는 하나의 작품을 보는 듯 독특한 디자인의 아이링 39만원 크리스토퍼 케인 by 본디샵.

한 침의 아트 피스와 같은 정교한 장식의 프래임이 돋보이는 선글라스 1백2만원 크리스토퍼 케인 by 올티갑 더블유.

에스닉한 패턴에 태슬 장식을 더한 로퍼 1백만원 토즈.

for her Selection

미니멀은 가고, 우아함과 발랄함, 화려함이 뒤섞인 맥시멀의 시대가 부활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과장된 디테일을 만끽해보길.

photographed by kim do hyun

사랑과 기쁨을 전한다는 진실적인 새, 오피라-탑에게서 영감을 받은 아주려 컬렉션 8만원 토즈 by 본디샵.

물방기죽을 장인의 손길로 정교하게 꼬아 완성한 돛 클러처, 17x10cm, 3백만원 토즈 by 본디샵.

대담한 색채와 화려한 패턴이 눈에 띄는 스웨이드 소재 울 스커트 가격 미정 발렌타노.

칼라와 세이프가 다양한 크리스탈을 매치한 이브닝 초커 89만원 스와로브스키.

반짝이는 시원 소재의 미니 백스 백, 18.5x10.5cm, 98만원 마크 제이 로스.

주와 장식의 스티플 샌들 2백만원 토즈 by 본디샵.

비바드한 컬러의 플라워 이클립스 수놓은 앵글 스트랩 힐 3백37만원 크리스찬 루부탱.

표정 있는 얼굴을 형상화한 카카한 디자인의 뺑글 가격 미정 사넬.

패시-블한 포인트가 도아줄 칼리드 백 참 1백37만원 펜디 by 본디샵.

ASERBIA NO. 588894 이니셜이 새겨진, 갈수된 에타피 귀무진, 아자엔

가슴을 감싸주는 1.5cm 두께의 레이스로 장식된

- 본디샵 02-2066-1234
- 에르메스 02-544-7722
- 올티갑 더블유 02-522-4343
- 토즈 02-3438-6008
- 발렌타노 02-543-5125
- 스와로브스키 1661-9060
- 보타가 베타타 02-3438-7682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5-3795
- 마크 제이름스 02-3213-2548
- 미우미우 02-3218-5331
- 몽발랑 1670-4810
- 사넬 02-543-8700
- 디올 02-513-0300
- 부세론 070-7500-7282

임브로이더리 장식 칼라와 자수 패치워크로 로맨틱 레트모 무드를 자아내는 데님 재킷 2백60만원대 미우미우.

곤충 모티브 주얼 장식이 아우라진 옐로 백백, 26x31cm, 4백만원대 디올.

©TIFFANY & CO. SWISS WATCHES S.A.G.L. 2016



Tiffany Cocktail
From the Inventors of the New York Minute
TIFFANY & Co.
NEW YORK SINCE 1837



for him
Selection

세계 4대 패션 위크인 뉴욕과 밀라노·런던·파리 패션 위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트렌드는 바로 맥시멀리즘이다. 그래서 준비한, 화려한 컬러와 패턴, 대담한 장식성이 엿보이는 셀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골드 프레임과 블랙 렌즈가 세련된 인상을 지어주는 블랙 선글라스 69,900원 **가방 by 시모노**
고급 소재로 포퍼(이디디)의 '클로'는 화이트 스퀘어 장식과 인디언 리본이 포인트.

파우더 핑거링 룩 스타일의 비친 메니 로퍼 가격 미정 **발렌티노 2가방 by 시모노**

별 모양 자수를 새긴 블랙 보타이 39만원 **코르시네 리베르티 by 10 프로스 코모**

가죽 오닉스 스카프 고급스러운 조화가 돋보이는 **구르스 앙리 69만원대 에르메스**

코르시네 리베르티는 비넬로 코르시네 중 비넬로 리베르티 59만원대 **발렌티노 2가방 by 시모노**

7분짜리 패턴이 돋보이는 사각 클러치백, 36x25cm, 1백만원대 **살버틀레 파카모**
깊이감이 느껴지는 가을 컬러 패턴을 프린트한 스카프 20만원대 **살버틀레 파카모**

크고 작은 골드 스타인더와 티파니 에버그린 장신구 **가방**

브란드의 전통적인 에미유 용브랑 명인을 에펠 기원으로 표현한 아반 티파니 워치 가격 미정 **에르메스 워치**

가죽 소재로 제작한 볼모티엔 키링 59만원대 **자형시**

문화 예술 후원자 에디션 페기 구인하임 4810 만년필 39만원대 **몽블랑**

심자수를 화려하게 수놓은 데님 셔츠 39만7천원 **올레안티비나**

AERPIRE 양방향 알라스테 아일링, 갈수안 에티카 클러진, 아가먼

양방향 양쪽은 스카프인 **코르시네 리베르티** 문양이 돋보이는 **구르스 앙리 69만원대 에르메스**

- 구찌 1577-1921
- 몽블랑 1670-4810
- 자형시 02-517-7560
- 펜디 02-2056-9023
- 시발로 02-514-9006
- 에르메스 02-544-7722
- 분다삼 02-3444-3300
- 올레안티비나 02-3444-0077
- 에르메스 워치 02-3015-3283
- 10 프로스 코모 02-3018-1010
- 아르네 스투디오 02-542-2290
- 크리스찬 루부탱 02-6906-3795
- 살버틀레 파카모 02-2140-9664
- 발렌티노 가방 by 시모노 02-6906-3610

램 피로 귀여운 카툰이름 형상화한 페이스 백백, 36x44cm, 9만2200원 **펜디**

MORGANE POLANSKI, GABRIEL-KANE DAY-LEWIS



Fay

FAY.COM

신세계백화점 부산점 6층 +82 2 310 1678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3층 (여성) +82 2 3479 1619 / 6층 (남성) +82 2 3479 1649



거침없이 경계를 넘나드는 밀레니얼 세대, 딱딱했던 미술계 지형도 바꿔놓을까?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팬을 거느리고 있는 <시네마 천국>의 주세페 토르나토레 감독이 연출한 영화 <베스트 오퍼(The Best Offer)>에는 세기의 경매사이자 미술품 컬렉터인 남자 주인공(제프리 리시 분)이 등장한다. 흰 머리 나무개는 노인이 되도록 일만 들어와지만 사실 그에게도 삶의 낙으로 삼고 있는 은밀한 사생활이 있다. 자신의 집에 설치한 '비밀의 방' 벽면을 뚫고서 매우고 있는 초상화 속 여인들을 남몰래 감상하는 취미다. 부와 여유, 식견까지 갖춘 나이 지긋한 '올드 제너레이션' 지식인이 뒷방에서 은밀하게 즐기는 사적인 취미. 영화에서 묘사하는 극적인 유형까지는 아니더라도 흔히 '아트 컬렉터'라고 하면 이처럼 비밀스러운 이미지가 연상되는 건 사실이다. 실제로 뭔가 감출 게 많아서 남몰르게 취미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조용하게 컬렉션을 완성해 나가면서 웬만해서는 과시하지 않는 겸양이랄까 훌륭한 컬렉터가 갖출 미덕으로 여기는 일종의 고정관념도 존재했다. 기성세대 컬렉터들 중에는 어지간한 수준이 아니라면 공언히 자랑하기도 부끄럽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빼어난 컬렉션을 갖춰다 할지라도 노년기에 접어들어서야 비로소 기부 형태든, 미술관 설립 형태든 사회에 공개하고 대중과 공유하는 수순을 밟는 게 일반적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경계가 무너지는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는 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미술품을 사고파는 방식은 물론 아트를 바라보고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다양해져서일까? 요즘 미술계에서는 당당하게 컬렉션을 공개하고 대중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세대교체의 조짐을 알리고 있는 젊은 컬렉터들의 활약상이 돋보인다. 그 변화의 흐름을 이끄는 세력은 소비의 핵심 계층으로 부상 중인 소위 '밀레니얼 컬렉터'들. 21세기를 주도하는 '소프트 파워'의 핵심 축으로 일컬어지는 문화에 초점을 두는 이들은 극적이거나 장르를 크게 개의치 않고 컨템퍼러리 아트를 섭렵하는데, 자신의 취향이나 컬렉션을 스텝없이 드러낼뿐더러 아트는 연결 고리 속에서라면 적극적으로 소통과 교류를 모색한다. 이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기반이 무너뜨린다. 엄연히 직업을 갖고도 컬렉터로, 갤러리스트로, 심지어는 아티스트나 큐레이터로도 도전장을 내민다. 특히 대중문화계에서 다양한 재주를 뽐내는 신세대 글로벌 스타들이 앞장설 경우에는 그 파장이 꽤나 클 수밖에 없다.

글로벌 현상으로 자리 잡은 밀레니얼 세대의 활약, 빅뱅의 탑(최승헌)이 #ITTOP이라는 이름을 내건 소더비 경매에서 큐레이터로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신선하다'는 반응도 많았지만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이들도 꽤 있었을 듯하다. 단순한 소장품 공개가 아니라 큐레이터라니, 아무리 마케팅이 중요해도 그렇지 과도하지 않느냐는, 다소 뼈뺀한 맥락에서 말이다. 물론 파격적이라 할 수는 있다. 크리스티와 함께 세계 경매 시장의 양대 산맥으로 2백50

년 넘은 전통을 자랑하는 소더비 아닌가. 유명 연예인의 소장품을 다룬 적은 있어도 큐레이터라는 개념을 도입한 건 소더비 홍콩 지사가 설립된 이래 초유의 일이라고 한다. 하지만 경계를 사뿐히 넘나들면서 위세를 떨치는 밀레니얼 세대의 활약은 이미 글로벌 무대를 달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술계에서는 대개 10만~2백만달러어치의 미술품을 사들이는 40세 이하의 젊은 세대(1980~2009년생)를 의미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밀레니얼 컬렉터로 정의한다. 향후 소비 시장을 주도할 이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SNS 등 디지털을 활용한 적극적인 소통, 지역이나 장르를 따지지 않는 '오픈 마인드', 좋아하면 남의 눈치를 별로 보지 않는 주관 등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전통 세대와는 확연히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러면서도 아닐로그 현장을 꺼리거나 소홀히 하지 않는 융통성도 갖추었다. 대표적인 밀레니얼 세대의 아트 파플을 꼽자면 중화권에서는 아트를 곳곳에 녹인 복합 공간 K11과 아트 재단 K11 파운데이션을 이끌고 있는 홍콩 출신의 30대 부호 에이드ريان 청(Adrian Cheng)이 있다. 상하이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세계 각지의 미술관을 후원하고, 미디어에 자주 등장하는 그는 1965년생 중국 작가 장안리(Zhang Anli) 전시의 큐레이터로 나서기도 했다. 중국 난징에 도시의 다양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창들이 인상적인 건축물 시팡아트 미술관을 부친과 함께 지은 선루(Sean Lu) 역시 30대 초반이다. 러시아에는 젊은 대중을 주요 타겟으로 잡은 가라지 현대미술 센터를 설립하고 아트 잡지를 펴낸 모델 출신의 다샤 주코바(Dasha Zhukova)가 있다. 러시아 석유 재벌로 프러미어 리그의 축구 클럽 첼시 구단주인 로만 아브라모비치의 파트너로도 유명한 그녀는 20대부터 아트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켜왔다. 힙합 음악의 기수인 미국 스타 퍼렐 윌리엄스는 연명대로는 밀레니얼 세대가 아니지만 누구 못지않게 경계 타파의 모범이 되고 있는 인물. 프랑스의 유명 갤러리 페로탱과 함께 2009년, 스위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아트 페어인 아트 바젤에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 테 이어 2014년에는 <Girls>라는 전시의 공동 큐레이터로 활약하기도 했다.

슈퍼 팬과 전문가의 경계가 무너진다, 디지털 파급력 무시 못해 무엇이든 미치도록 좋아서 하는 것만큼 무서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물론 컬렉터라면 예나 지금이나 단순한 단골 고객 수준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주제 의식까지 지닌, 전문가 못지않은 '슈퍼 팬'이 많다. 하지만 '디지털'이 여러모로 영향력을 극대화하는 증폭제 역할을 하는 요즘의 슈퍼 팬들은 막강한 인물루인사 대접을 받고 있다. 게다가 대중적인 스타를 비롯해 디지털 세상에서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는 '문화 셀럽'의 파급력은 그야말로 엄청나다. 지난해 영화배우 피어스 브로스넬이 한 경매 회

사를 방문했다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 체어 '록히드 라운지의 사진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그로부터 몇 주 뒤 열린 경매에서 이 작품은 무려 2백40만파운드에 팔리면서 기록을 깼다. 작품의 수준이 뒷받침돼야 하고, 자칫 마케팅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업계 종사자들로서는 어찌 귀가 종긋 서지 않겠는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요 갤러리나 경매 회사가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이 큰 데다 소통에도 적극적인 '젊은 피' 수혈에 공을 들이는 건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는 영리한, 아니 어쩌면 필연적인 행보다. 탑과 소더비의 협업도 마찬가지다. 탑은 디자인, 아트, 가구 등 전방위적으로 수집을 해온 예술 애호가일 뿐만 아니라 5백만이 넘는 인스타그램 팔로어를 거느리고 있는 글로벌 스타인 만큼 누가 봐도 매력적인 대상이 아닐 수 없다(특히 예술이 생소한 이들에게도 자연스러운 '입문'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더군다나 이번 경매는 아시아의 젊은 컬렉터들을 기념하고 신진 예술가를 지원한다는 취지(판매 대금의 일부를 아시아문화위원회에 기부할 예정이다)를 밝혔을 뿐 거창한 명분을 내걸지는 않았다. 지난 1년 동안 정성 들여 준비했다는 이 경매에 대해 소더비 아시아 현대미술 담당 디렉터 이블린 린(Evelyn Lin)은 "생기 넘치는 아시아 미술계를 뒷받침하는 열정적인 젊은 컬렉터 그룹의 기상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면서 "이들은 여러 문화와 장르에 걸친 현대미술을 추구하면서 폭넓고 다양한 컬렉팅을 한다는 공통 분모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UCCA 미술관의 설립자 윌렌스(Ullens) 컬렉션을 위한 기획 경매를 비롯해 세계 기록을 수립한 수많은 경매를 꾸려온 베테랑 린은 "아시아와 서구 현대미술의 기성 작가와 떠오르는 신성을 아우르는 이번 경매가 젊은 아시아 컬렉터들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공유하고 소통하는 컬렉팅 문화, 삶을 즐기는 하나의 방식 실제로 이번 경매 출품작의 스펙트럼은 동서양과 친구를 가리지른다. 아시아 세션에서는 고 김환기 작가의 수작을 비롯해 이우환, 백남준, 박서보, 정상화 등 한국의 대가들부터 고기타도무, 박진아, 허상위, 사이토 모코토 등 한·중·일의 신진 아티스트들이 있고, 서양 세션에서는 앤디 워홀, 조지 콘도, 루돌프 스타링겔, 시그마 폴케 같은 블루칩 작가들의 작품, 떠오르는 별 조나스 우드, 전설적인 사진가 데이비드 라사렐의 컬렉션에서 나온 키스 해링의 희귀작도 포함돼 있다. 탑의 친구이자 일본의 컬렉터 미에자와 유사쿠는 "우리는 좋은 친구이기도 하지만 컬렉팅 문화를 함께 즐긴다"며 자신의 소장품인 장 미셸 바스키아의 대표작 '보병대(Infantry)'(1983)를 선뜻 내놓아 공유를 선호하는 밀레니얼 컬렉터 세대의 우정을 보여주기도 했다. #ITTOP에 선보일 25억 점 작품의 총 추정가는 1백30억원대. "예술은 삶을 바꾸는 힘을 지니고 있다." 탑은 이번 경매에 앞서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예술은 많은 이들에게 전혀 다른 삶의 차원을 선사한다. 컬렉터가 되는 순간 가는 곳과 만나는 사람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다. 물론 순수하게 좋아서 즐기며 시작될 취미지만 '아트'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사회적 관계를 쌓으면 오래 지속될 수 있는 탄탄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기도 하다. 삶을 즐기는 방식을 공유하고 공감하는 것만큼 강력한 유대감은 좀처럼 찾기 힘들 테니 말이다. 그래서 컬렉터는 갤러리스트는 일부 아트 종사자들은 일부러 비싼 작품을 구매 유명세를 쌓고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경우도 많다. <아트뉴스>에 소개된 린한(Lin Han)이라는 젊은 중국인 갤러리스트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는 그저 많은 작가들의 작품을 취급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팔 게 없다는 소리를 들었죠. 이제는 사람들이 제 이름을 알도록 아주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사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실제로 그는 중국 현대 미술 대가 쟁판즈의 회화 작품을 5백만달러 넘게 주고 구입했다.

아트의 대중화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까? 어쨌거나 아트가 점점 더 많은 이들 사이에서 화자되고 젊은 세대가 주체적으로 동참하면서 단순한 투자 목적보다는 '즐거려는' 의도가 더 강한 미술 애호가들이 많아지는 현상은 반갑다. 특히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도 다양한 예술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채널이 많아지면서 고소득 전문직과 중산층을 중심으로도 애호가층이 확대되어 아트의 대중화라는 명제가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쏠리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은 그중에서도 미술 시장의 저변을 넓힐 수 있는 강력한 도구다. 아직 온라인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세계 미술품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크지 않은 수준이지만(2014년 기준 6%), 젊은 역사를 감안하면 꽤 의미 있는 수치인 데다가 성장률이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시장에서는 1천~5만달러대 작품이 가장 활발하게 거래된다는 통계가 있듯이,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초보 컬렉터들에게 미술 시장으로 부담 없이 진입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더비의 이블린 린 디렉터는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볼 때 소더비의 온라인 판매액이 9천만달러에 이르렀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성장한 실적으로도 경매 건수(lot)로 치면 무려 54% 증가한 수치"라면서 온라인의 가능성은 정말로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새로운 고객의 유입이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에 온라인상에서만 이뤄지는 5건의 경매를 진행했는데, 그중 두 건은 100% 낙찰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그중 33%가 신규 고객이었다는 점이었어요." 이렇듯 '블록정 다수가 대상이 될 때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수요의 저력은 소수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아트를 둘러싼 세상에서도 온라인의 잠재력이 그저 기대감에만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에디터 고영선**

간혀있던 피부 산소력을 깨우다

당신의 스킨케어
피부 산소력까지 키워주나요?

즉각적으로 피부 장벽을 22% 더 강화시켜주고
산소 레벨을 8% 높여주는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부스팅 인퓨전

경험하세요
새롭게 차오르는 피부 산소력

사용 후 15분 경과, 피부 장벽 22% 강화 |
28일간 사용 결과, 산소 레벨 8% 증가



아티스트리 인텐시브 부스팅 인퓨전
INTENSIVE SKINCARE BOOSTING INFUSION

ARTISTRY™

글로벌 TOP 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man's New Look

패션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한동안 패션계를 지배한 '미니멀리즘'이 중심이었던 무대는 가고, 그보다 더 앞선 시대로 타임 슬랩한 것. 화려한 스팅글 장식과 앤티크한 패턴, 실크와 자카드, 에나멜과 벨벳 등 광택이 풍부한 소재가 가득했던 과감한 1980년대 무드를 다시금 향유할 차례다. 수많은 청춘이 열광한 그때 그 시절로!

Trend 1 OVERSIZE ME

남성과 여성의 성별 구분을 없앤 '젠더리스' 열풍으로 중성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던 시절과 디올 울프의 수트처럼 몸에 딱 맞는 옷을 입는 게 트렌드라고 여겨지던 때는 지나갔다. 이전의 남성 트렌드 키워드는 패션 전황에 있는 극소수 남성들에게만 해당되었지만, 이제는 모든 남성들이 함께 새로운 트렌드를 만끽할 차례다. 바로 딱히 신체 사이즈를 규정하지 않은, 과장된 오버사이즈 실루엣이 이번 시즌 모든 컬렉션에 걸쳐 다시 등장했기 때문. 이러한 경향이 가장 두드러진 파트는 바로 남성 아우터, 그중에서도 코트다. 발렌 시아기와 랭방은 바시한 실루엣을 바탕으로 더블브레스트 코트를 선보였으며, 베버리와 마르니는 거기에 체크 패턴을 더해, 클래식과 레트로의 경계를 넘나드는 디자인을 표현했다. 이번 시즌 정의되는 '오버사이즈'는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것이다.

Trend 2 BAGGY SUITS

남자라면 옷장에 수트 한 벌쯤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 트렌드 키워드 중 제시된 수트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맨이 입는 포멀한 수트가 아닌, 몸의 형태를 드러내는 슬림한 것보다는 여유로운 것, 어찌 보면 편 안한 트래킹 웨어 실루엣에 더욱 근접한 룩이다. 에르메네제쥬도 재-와 라프 시몬스가 제안하는 것처럼 목 끝까지 잠근 셔츠를 매치해도 좋고, 이번 시즌 드리스 반 노트처럼 목둘레가 살짝 파인 티셔츠를 매치해도 좋다. 칼라와 패턴이 똑같은 재킷과 팬츠를 입을지, 서로 다른 디자인을 선택할지는 당신의 몫이다. 다만, 이 룩을 연출할 땐 크게 신경 쓰지 않은 듯한 담담함과 스루스가 여유로워야겠다는 노력에서 풍기는 근사한 에티튜드가 필수라는 걸 기억하자.

Trend 3 TOUGH & ROUGH

이번 시즌에는 남녀 불문하고 유독 퍼의 다양한 활용이 두드러졌다. 이전 남성들도 부담 없이 퍼를 입는 시대가 도래한 듯하다. 하지만 여성 컬렉션처럼 다양한 기교를 통해 이티스틱하게 표현된 디자인이 아닌, 어떨게 보면 꿈의 탈을 쓴 것 같은 러프하고 단순하게 사용한 퍼 소재가 돋보인다. 바로 돌체앤가바와 펜디의 컬렉션에서 선보인 퍼 코트가 이를 뒷받침해준다. 멋스러운 오버를 풍기는 퍼 트렌치코트를 소개한 루이 비통과 부분적으로 퍼를 활용한 에르메스의 레더 코트뿐 아니라 베버리에서 선보인 북슬룩을 토크할 블루충과 코치의 귀은 잉털을 활용한 시어링 재킷 등 보다 웨어러블하게 전개되기도.

Trend 4 ANOTHER BLOUSON

이번 시즌, 블루충보다 더 눈에 띄는 아우터가 있을까? 바로 하나하나 나열하기 힘들 만큼 남성 컬렉션 전반에 걸쳐 블루충의 활약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 어찌 부분은 풍성하고 허리는 절룩한 블루충의 특성상 스타일링하기 까다로운 것만 생각은 기우다. 이제 진정한 하이패션의 퀘도에 진입한 블루충은 특유의 울룩불룩한 패딩 질과 몇 배 더 스타일링이해 보이며, 생각 외로 어느 룩이나 두루 잘 어울린다. 실바토레 페라가모와 루이 비통은 슬림한 팬츠와 함께 아우터를 목까지 꼭 잠근 상태로 가장 안쪽 스타일링을 보여줬고, 베버리는 여기에 달디디 나팔처럼 퍼지는 벨보트 팬츠와 매치, 복고적인 뉴앙스를 연출했다. 또 비버안 웨스트우드, 드리스 반 노트의 경우는 재킷을 오픈한 상태에서 실루엣이 여유로운 팬츠와 함께 선보여 자연스러운 멋을 뽐냈다. 울가움을 위해 꼭 소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정답은 '블루충'이다.

Trend 5 COOPER BROWN

그동안 가을, 겨울의 전통적인 컬러는 주로 네이비와 블랙, 그레이였다. 하지만 올해만큼은 딥 옐로 색상이나 레드, 브라운 등 딥한 톤의 가을 컬러가 주를 이룬다. 그중에서도 정제되면서도 우아한 쿠퍼 브라운 색상이 이번 시즌 킷 컬러다. 신화된 구리를 연상시키는, 오렌지빛이 살짝 감도는 브라운 색상이라고 정의되는 쿠퍼 브라운은 벽돌색과 황갈색을 이루는 차분하면서도 깊이감 있는 색으로 표현된다. 깔끔한 흰색 셔츠에 쿠퍼 브라운 스타일링 수트를 매치해, 간결한 포인트 컬러로 활용한 브리오니, 단색별로 다양하게 활용한 쿠퍼 브라운 컬러로 톤온톤 룩을 완성한 에트루를 교본으로 컬러의 강약 조절을 익히자.

Trend 6 RETRO X CLASSIC

패션에 끊임없는 영감을 준 1970년대, 롤링 스톤스를 비롯해 그 시절을 풍미한 브릿 록 밴드에서 영감을 받은, 자유분방한 믹스 매치 스타일이 트렌드로 떠올랐다. 흔히 패션계에서 1970년대를 논할 땐, 미국의 히피 문화에서 흘러나온 보헤미안 무드에 근간을 두었지만, 이번엔 1960~70년대 초반 영국 뮤지션들의 스타일 의상에서 비롯된 레트로한 세미-캐주얼 룩이다. 보타가 베네타는 이를 가장 잘 표현한 브랜드 중 하나로, 반짝이는 가죽 팬츠에 클래식한 체크 패턴의 점입을 매치했으며, 프라다는 대부분의 아우터에 레트로한 체크 패턴을 주안해, 클래식과 젊음, 그리고 레트로 사이를 오가는 다양한 전개를 보여줬다.

Trend 7 ROYAL CODE

이번 시즌엔 자극히 평범한 아이 템으로 자연스러운 멋을 표현하는 '노코어(normcore)'와 무심한 듯 시크함을 뜻하는 '에프포리스 시크(effortless chic)'에서 탈피한 장식적이고 빈티지한 룩이 트렌드다. 비로 르비상스 시대에서 영감을 받은 화려하고 맥시컬한 구찌의 2016 F/W 컬렉션이 이를 여실히 증명한다. 그 시대적 미학을 현대적으로 가장 잘 풀어낸 구찌의 컬렉션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화려하고 섬세한 자수 장식이 돋보인다. 반면 에르메네제쥬도 재-는 구찌가 표현한 것보다 좀 더 히스토릭한 무드로 풀어냈는데, 비로 클래식 데일링과 쿠티르적 터치로 기이한 앤티크와 바르코 모티프, 벨벳과 자카드 등이 주를 이루는 고전적이며 귀족적인 룩이 그것이다. 에디터 **이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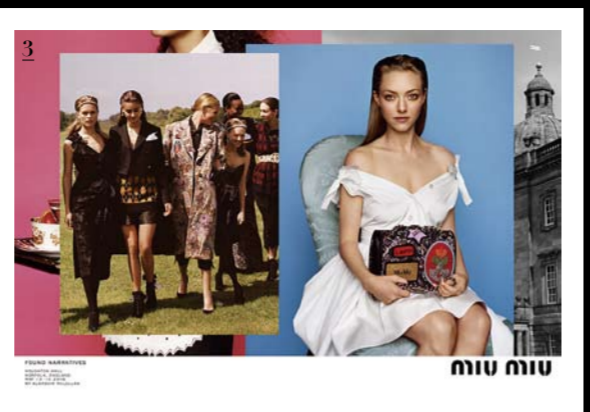


emporioarmaniswissmade.com - ARS 7701



Classic Collection
12-diamond mother-of-pearl dial,
Hand assembled multi-link bracelet

EMPORIO  ARMANI
SWISS MADE
DESIGNED IN MILAN. CRAFTED IN SWITZERLAND



BOTTEGA VENETA

scene stealer 2016 F/W

새로운 시즌을 알리는 패션 브랜드의 광고 캠페인을 소개한다. 보다 강렬한 첫인상을 각인시키기 위해 유명한 셀럽은 물론, 신선한 뉴 페이스 모델을 기용하기도 하며, 때론 라이징 아티스트와 손을 잡기도 했다. 이 중 당신이 첫눈에 반한 광고 비주얼은?

1 실을 줄질 줄 아는 진정한 이탤리언 라이프스타일을 표현한 슌비토레 페라기오의 2016 F/W 광고 캠페인. 2 구찌의 수장 알렉산드로 미켈레의 유쾌한 사고방식이 이번 광고 캠페인에서도 한 번 발휘되었다. 바로 광고 비주얼에 이례적으로 영화 자막과 같은 폰트를 장식한 것 3 배우 이린다 사이프리를 내세워 대중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미우미우의 광고 캠페인. 4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얼굴과 하우스를 대표하는 오랜 친구를 뜻하는 '갱(gang)'을 모티브로 촬영한 자카르타의 2016 F/W 광고 비주얼. 5 매 시즌 아티스트와 협업한 보타가 배너. 이번 시즌에는 이탈리아의 아티스트 알베르토 부리알라와 협업했다. 6 배우 마고 로비 외에도 C양한 엔터테인먼트가 참여한 쉐빈 클라인의 가을 글로벌 광고 캠페인. 7 생세-나 고메즈가 참여한 루이비통의 2016 F/W 컬렉션 캠페인 '시리즈 5'. 8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스티븐 미어젤이 촬영한 디올 하우스의 광고 비주얼. 9 영국 아티스트 루크 에드워드 홀의 일러스트로 특별한 광고 비주얼을 완성한 버버리. 10 늘 캠페인 화보를 직접 촬영하는 칼 라가펠트가 선보인 펜디의 2016 F/W 컬렉션 캠페인. 에디터 **이지연**



BVLGARI.COM



BVLGARI

ROMA

SERPENTI

Diamond Dreams

반짝이는 빛만으로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깃털처럼 피부 위에 살며시 자리 잡을, 고귀한 설렘을 전하는 다이아몬드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볼드한 느낌을 줄여 실제로 착용할 수 있게 변형한 세르펜티 컬렉션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블가리**, 반짝이는 별의 윤곽선에서 영감을 얻은 어브스트랙트 스타 다이아몬드 링 **타사키**, 별의 마미에서 영감을 받은 세팅 보행 화이트 골드 원헤드 라지 링 **부세온**, 세의 자유로운 날갯짓에서 영감을 받은 오이조 드 파라디 비트윈 더 핑거링, 마치 깃털이 흔들리는 듯한 느낌이다. 활짝 피어난 5개의 꽃잎을 묘사한 플라워 레이스 링 **반클리프 아펠**, 손가락에 두 번 걸쳐 더욱 감각적인 티파니 T 렙 링 **타파니**, 상아의 숨겨진 표현 한 독특한 모티브의 걸리 링 **타사키**, 3백 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하게 목을 감싸는 카스카드 네크리스, 화이트 골드에 1백68개의 다이아몬드를 세 줄로 세팅한 카스카드 브레이슬릿 모두 **부세온**, 별의 비늘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컬렉션 브레이슬릿 **블가리**, 상아의 별인 턱뼈를 통해 아성기를 느낄 수 있는 걸리 네크리스 **타사키**, (동그란 원형 안 왼쪽 브레이슬릿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별에서 영감을 받은 세르펜티 아이즈 온 미 컬렉션 브레이슬릿과 링, 네크리스, 울리 황태의 비늘 패턴을 새롭고 고안하고에 메달드로 별의 강렬한 눈을 표현했다. 모두 **블가리**, 다이아몬드로 네 개의 꽃잎을 표현한 코스모스 네크리스 **반클리프 아펠**, **블가리** 로고를 강조한 비저로인 컬렉션 브레이슬릿 **블가리**, 꽃에서 영감을 얻은 저스트 앵글루 다블 브레이슬릿, 6백24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화려하다. 다이아몬드를 풀 때에 세팅한 러브 브레이슬릿, 2.45캐럿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까르띠에**, 마조스 컷 다이아몬드로 꽃잎을 형상화한 비토리아 키 펜던트, 플라워링에 다이아몬드를 정교하게 세팅했다. **타파니**, 진주를 알물로 늘어놓은 화이트 골드 비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더욱 볼드한 느낌의 벨런스 파베 링, 나란히 늘어선 진주에 0.5캐럿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벨런스 솔로 모두 **타사키**, 에디터 **베미진**

부세온 070-7500-7282 까르띠에 1566-7277 **블가리** 02-2056-0171 **반클리프 아펠** 00798-852-16123 **타파니** 02-547-9488 **타사키** 02-3461-5558



ISSEY MIYAKE

THE SHILLA SEOUL 02-2231-6282 HYUNDAI MAIN 02-3438-6290 HYUNDAI COEX 02-3467-8433 HYUNDAI KINTEX 031-822-3277
 HYUNDAI PANGYO 031-5170-1268 HYUNDAI BUSAN 051-667-0440 HYUNDAI DAEGU 053-245-2225 HYUNDAI ULSAN 052-228-0475
 SHINSEGAE MAIN 02-310-5358 SHINSEGAE GANGNAM 02-3479-1787 SHINSEGAE GYEONGGI 031-695-1383
 SHINSEGAE CENTUM CITY 051-745-2468 LOTTE MAIN 02-2118-6099 LOTTE JAMSIL 02-2143-7213 LOTTE BUSAN 051-810-4217
 AK PLAZA BUNDANG 031-781-8258 DEBEC PLAZA 070-7123-8367

www.isseymiyake.com

color Code

좀 더 특별한 시계를 찾고 있다면, 워치 & 주얼리 하우스에서 선보이는, 강렬한 컬러를 입힌 워치에 주목하자. 당신의 손목 위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맨 위부터 시계 방향) **부세르 리플레** 건축에서 영감을 받은 버티컬한 고드론 모티브를 섬세하게 세공한 옐로 골드 케이스가 돋보이는 이 워치는 특유한 인티어내셔널 스트랩 방식을 적용했다. 칼라와 소재가 다양한 스트랩으로 간편하게 교체 가능해 스트랩에 따라 다양한 무드로 연출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1천만원대, 문의 070-7500-7282

사헬 프리아에르 락 팝 1984년 처음 선보인 사헬 최초의 워치, 프리아에르 컬렉션, 사헬 N 5 향수병의 마개와 피리 병통 광장의 필라형을 모티브로 만들었다. 손목에 두 번 감을 수 있는 긴 체인 브레이슬릿은 사헬의 아이코닉한 2.55 백의 체인에 착안했다. 매 시즌 새로운 컬러를 선보이는데, 이번엔 밝은 핑크와 타우아즈 컬러의 가죽을 교차한 스틸 체인 스트랩으로 출시한다. 5백만원대, 문의 02-3442-0962

에르메스 포부르 만버트 컷팅 형식의 굵은 스트랩에 미니멀한 케이스를 더한 포부르 만버트 워치, 마구들 만들던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에르메스 메종의 가치에 걸맞게 최고급 카프 레더로 이루어졌으며,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새들 스타일 장식으로 마무리했다. 어느 쪽에나 포인트가 될 강렬한 레드 컬러 가죽으로 선보인다. 3백만원대, 문의 02-3015-3281

불가리 다비스 드림 영화 (클레오파트라(Cleopatra)) 속 주인공 엘리자베스 테일러의 강렬한 매디슨에서 받은 영감으로 탄생시킨 모델, 마치 꽃잎이 울리듯 정교하게 정공을 세공한 플라워 모티브 디자인이 돋보인다. 다비 컬렉션의 상징인 정공의 부채꼴 창은 스트랩 러그로 활용해 케이스와 새틴 스트랩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7천2백만원대, 문의 02-2056-0171

워렌트 빅뱅 투티 프루티 로즈 투티 프루티 로즈는 이탈리아어로 과일을 의미한다. 핑크 사피아어로 베젤에 포인트를 주고, 로즈 스트랩을 매치해 이롭차림 상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라바에 엘라게이터 가죽을 덧댄 워렌트만의 독창적인 스트랩은 기존의 엘라게이터 가죽 스트랩보다 10배 이상 내구성이 높다. 5천만원대, 문의 02-2118-6208

빈클리프 아벨 레이디 아벨 발레리나 앙상블 8시 방향의 푸시 버튼을 누르면 발레리나의 왼쪽 튜브 베일이 올라가면서 시간을 가리키고, 이어 오른쪽 튜브 베일이 올라가면서 분을 가리킨다. 발레리나의 우아한 동작은 더블 레트로그래드 무브먼트로 움직인다. 가려 미정. 문의 00798-852-16123

오메가 드 빌 프레스티지 듀드람 브랜드 로고를 본뜬 유연한 곡선 세이프의 오메가 파인 주얼리 듀드람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했다. 옐로 골드 케이스 위 베젤을 따라 다이아몬드를 세팅했으며 마더오브밀 다이얼을 매치하고, 강렬한 레드 컬러 스트랩으로 마무리해 여성스러운 무드를 강조했다. 1천4백만원대, 문의 02-511-5797

타파니 아스트 웨스트 수직이 아닌 수평으로 디자인된 혁신적인 다이얼이 눈길을 끈다. 가로 42mm, 세로 25mm의 스틸 케이스로 타파니를 상징하는 민트 다이얼에 그레이 컬러 레터 스트랩을 매치했다. 남성뿐 아니라 중성적인 디자인의 워치를 좋아하는 여성들에게도 추천한다. 4백만원대, 문의 02-547-9488

까르띠에 골레 드 까르띠에 '06는 프랑스어로 열쇠를 뜻하는데, 크라운의 디자인도 열쇠 모양을 차용했다. 일반적인 크라운의 사이즈보다 한층 크게 제작해 조작하기 쉬운 뿐 아니라 시간과 날짜를 설정하기 위해 크라운을 돌리면 전통적인 방식에나 탁상시계 등을 와인딩 할 때 열쇠를 돌리는 동작을 연상시킨다. 브랜드의 설립 연도를 의미하는 '1847 MC' 컬러 버를 강조했다. 9천만원대, 문의 1566-7277 에티어 **베미진, 이자언**



THE SHILLA SEOUL: 02.2231.6282 / HYUNDAI MAIN: 02.3438.6290 / HYUNDAI COEX: 02.3467.8533 / HYUNDAI SHINCHON: 02.3145.2488 / HYUNDAI MOKDONG: 02.2163.1290 / HYUNDAI KINTEX: 031.822.3277 / HYUNDAI PANGYO: 031.5170.1273 / HYUNDAI BUSAN: 051.667.0446 / HYUNDAI DAEGU: 053.245.2242 / HYUNDAI ULSAN: 052.228.0470 / SHINSEGAE MAIN: 02.310.1248 / SHINSEGAE GANGNAM: 02.3479.1795 / SHINSEGAE GYEONGGI: 031.695.1456 / SHINSEGAE CENTUM CITY: 051.745.2490 / LOTTE MAIN: 02.726.4460 / LOTTE JAMSIL: 02.2143.7227 / LOTTE GANGNAM: 02.531.2263 / LOTTE BUSAN: 051.810.4215 / LOTTE CENTUM CITY: 051.730.3265 / LOTTE DAEGU: 053.660.3095 / GALLERIA TIMEWORLD: 042.720.6297 / AK PLAZA BUNDANG: 031.703.4477
www.isseymiyake.com

PLEATS PLEASE
ISSEY MIYAKE



New step up

서두르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 트렌드 전선에 선,
지금 가장 핫한 럭셔리 하우스의 뉴 남성 신저즈.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상단 스케이프보드 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블랙 밴드로 브랜드의 상징인 트리플 스타치를 표현한 숄더가죽 스니커즈 93만5천원 **에르메-비질도 제나**, 모노그램 패턴의 캔버스 슬림은 90만원대 **루이 비통**, 워트 오프는 이모티콘 스타드 장식이 포인트인 레드 컬러 스니커즈 83만원 **펜디**, 고급스럽고 깊이감 있는 버건디 컬러의 하이톱 스니커즈 80만원대 **살바토레 페라가모**, (하단 스케이프보드 위, 위부터 시계대로) 골드 스타드를 더한 흑 스티드 오프탑을 칼라색 화이트 스니커즈 90만원 **발렌티노 가리버니**, 강렬한 팔색 모양 자수와 상선 스트라이프가 감각적인 로 볼 스니커즈 85만5천원 **구찌**, 물감을 흠뻑 칠한 듯한 추상적인 패턴과 페달 장식이 돋보이는 네이비 스니커즈 90만원대 **토즈**, 에디터 권유진

에르메-비질도 제나 02-3453-2287 **루이 비통** 02-3432-1854 **펜디** 02-2056-9023
살바토레 페라가모 02-2140-9664 **발렌티노 가리버니** 02-2015-4653 **구찌** 1577-1921 **토즈** 02-3438-6008



LÄTT BY T

LOVE YOUR STYLE

또다시 새로운 시작. 복고풍, 보헤미안, 그래픽 패턴, 쇼킹 컬러... 빛나는 유행과 나만의 스타일을 맘껏 즐기고 사랑할 시간이 왔다.
photographed by jung ji eun



블랙 지퍼 디테일 재킷, 코르셋을 착용한 듯 굴곡이 돋보이는 화이트 베스트, 블랙 배기팬츠, 골드 컬러 드롭 이어링 모두 가격 미정 **루이 비통**.



(왼쪽) 실루엣이 풍성한 말모티리 말드 아우터 가격 미정, 페이즐리 패턴의 자카드 셔츠 드레스 3백80만원 모두 **버버리**, 골드 지퍼 디테일을 기미한 앵글 슈즈 1백58만원 **쥬세페 지노티**, (두 번째) 시퀀 장식이 화려한 알티칼러 미니드레스 8백50만원, 파이론 소재의 앵글부츠 3백60만원 모두 **버버리**, (세 번째) 파이론 패턴 라인과 플로럴 패턴이 멋스러운 실크 크레이프 드레스 4백20만원, 골드 스타드 장식의 투빅한 슈즈 1백70만원 모두 **버버리**, (네 번째) 강렬한 느낌을 주는 파이론 소재 트랜치코트 8백만원, 메탈릭한 자카드 스카르트 드레스 가격 미정, 알티칼러 앵글 슈즈 3백60만원 모두 **버버리**.



(왼쪽) 플라워 패턴이 여성스러움을 배가하는 원피스 가격 미정 **페이**, (가운데) 오리엔탈 무드를 자아내는 패턴이 멋스러운 셔츠, 프린지 디테일 스웨이드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페이**, (오른쪽) 패치워크 디테일 니트 톱, 프린지 디테일 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페이**.



(왼쪽) 아이보리 컬러 스킨 세트 슬리브 톱, 광택감이 느껴지는 네이비 롱 드레스, 스웨이드 소재의 와이드 팬츠, 화이트 컬러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살만느**, (오른쪽) 러플 디테일을 가미한 화이트 셔츠, 실링거리는 프린지 디테일이 드라마틱한 효과를 선사하는 재킷, 블랙 스모킹 팬츠, 블랙 앵글 슈즈 모두 가격 미정 **탈프르벤**.



(왼쪽) 오렌지와 파랑 컬러로 완성한 그래픽 패턴 실크 롱 2백1만원, 한 쪽의 그림을 연상케 하는 폴리워 패턴 잉크를 매치한 플리츠스커트 1천1백57만원, 유려한 곡선 라인이 돋보이는 웨이브 힐 1백32만원 모두 **렌다**. (오른쪽) 아라미인 컬러의 그래픽 프린트 드레스 4백82만원, 앙증맞은 웨이브 디테일이 달린 레더타이츠 2백52만원, 웨이브 힐 1백43만원 모두 **렌다**.



(왼쪽) 울날리는 것들을 연상케 하는 패턴의 크롬트 롱과 팬츠, 블랙 컬러 스트랩 힐 모두 가격 미정 **자담비티스타 빌리**, (두 번째) 블랙 미니드레스, 다리 라인을 조여주는 레이스업 디테일이 관능미를 선사하는 부츠 모두 가격 미정 **자담비티스타 빌리**, (세 번째) 목을 감싸는 칼라 디테일과 레이스가 화려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을 주는 화이트 컬러 코트, 패턴을 기미한 앵글 힐 모두 가격 미정 **자담비티스타 빌리**, (네 번째) 클래식한 트워드 재킷과 스커트, 블랙 앵글 슈즈 모두 가격 미정 **자담비티스타 빌리**.



(왼쪽) 블랙 퍼 롱 코트, 퍼를 트리밍한
 질프 수트 모두 가격 미정 **막스마라**.
 (가운데) 블랙 & 화이트 퍼 롱,
 블랙 컬러 미디스커트 모두 가격 미정 **막스마라**.
 (오른쪽) 스트라이프 패션을 더한
 블루 컬러 롱 코트 가격 미정 **막스마라**.

(왼쪽) 금직한 플라워 패턴의 클로젯 셔츠
 1백만원대, 브라운 컬러 레더 뷔스티에
 60만원대, 다양한 소재와 패턴을
 패치워크한 롱스커트 2백50만원대,
 발렛 소재의 앵클부츠 가격 미정,
 브라운 니트 글러브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오른쪽) 퍼로 완성한 슬리브가 유니크한
 재킷 가격 미정, 함께 레이드한 블루
 클로젯 스커트 1백50만원대, 니트 타이츠
 60만원대, 레트로한 버클이 달린
 앵클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왼쪽) 금직한 플라워 패턴의 클로젯 셔츠
 1백만원대, 브라운 컬러 레더 뷔스티에
 60만원대, 다양한 소재와 패턴을
 패치워크한 롱스커트 2백50만원대,
 발렛 소재의 앵클부츠 가격 미정,
 브라운 니트 글러브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오른쪽) 퍼로 완성한 슬리브가 유니크한
 재킷 가격 미정, 함께 레이드한 블루
 클로젯 스커트 1백50만원대, 니트 타이츠
 60만원대, 레트로한 버클이 달린
 앵클 스트랩 샌들 가격 미정 모두 **프라다**.

(왼쪽) 유아한 백조가 프린트된 블랙 롱 니트 드레스 가격 미정 **스텔라 매카트니**, 상물한 메리의 샹비 이어링 10만원 **남버링**, 블랙 컬러 오픈 토 앵글 부티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탱**, (오른쪽) 진주 장식과 라플 디테일이 사랑스러움을 자아내는 니트 미니드레스 4백78만원, 그래픽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롱 드레스 3백93만원 모두 **구찌**, 샹비 미러 이어링 14만원 **남버링**, 퍼플 트림한 스트랩 힐 가격 미정 **스튜어트 와이츠먼**.

헤어 강현진
메이크업 홍현정
모델 최소라, 배윤연, 현지은, 권지아
아시스턴트 김혜민
스타일리스트 채한석(raymondchae.com)
에디터 권유진

루이 비통 02-3432-1854
버버리 02-3485-6536
쥘세베 지노티 02-543-1937
펜디 02-2066-9022
말프론펜 02-545-8200
스텔라 매카트니 02-6905-3680
남버링 070-7561-6794
크리스찬 루부탱 02-541-8550
구찌 1577-1921
스튜어트 와이츠먼 02-6905-3991
셀린느 02-540-0486
프라다 02-3442-1830
페이 02-310-1678
지엠비티스타 빌리 02-6905-3357

moisture Delivery

유달리 혹독했던 폭염을 견뎌낸 피부는 말 그대로 지칠 대로 지쳤을 터. 이럴 때일수록 기초 스킨케어에 집중해, 붕괴된 유수분 밸런스와 흐트러진 피부 컨디션을 다시금 끌어올려야 한다. 데코르테의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가 당신의 피부를 건강하게 지켜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성분만큼 중요한 전달 기술, 리포솜 캡슐
긴 여름 끝자락에 있는 이 시점에서 크고 작은 피부 변화를 경험하고 있을 터. 즉, 강한 자외선에 따른 수분 손실로 피부는 더욱 건조해지고 기미, 잔디는 더욱 도드라지는 것. 달콤한 여름휴가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여름이 남긴 강렬한 흔적은 결코 덜감지 않다. 피부 전문가들은 피부가 건조해지는 시기인 여름 막바지가 피부 관리의 골든 타임이라고 말한다. 이 시기에 제대로 된 기초 스킨케어를 해주어야 피부가 더욱 건강해지기 때문. 그렇다면 피부에 수분을 어떻게 전달하는지가 관건인데, 사실 메마른 피부에 단백질 같은 수분을 공급하기엔 수분 에센스만 한 것이 없다. 그럼, 무식무식해진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충전해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수분 에센스는 어떻게 골라야 할까? 바로 필요한 성분을 피부 속까지 제대로 전달하는 전달 기술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데코르테의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는 눈여겨볼 만하다. 약 30년 전, 같은 화장품 성분이라도 피부마다 다른 효과를 내는 이유에 의문을 품은 데코르테의 연구원은 화장품에 사용하는 유용 성분의 중요성만큼, 그 성분을 필요한 곳까지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전달 기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8년간 리포솜 캡슐 기술력을 연구해 마침내 1992년, 리포솜 기술을 화장품에 접목한 모이스처 리포솜을 선보였다. 그 이후에 리퀴드 제형에도 리포솜 캡슐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다중층 리포솜 캡슐을 다시 한 번 개발한 데코르테는 12년 만에 진화된 캡슐을 활용, 오늘날의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를 탄생시켰다. 데코르테의 다중층 리포솜은 한 겹의 캡슐이 아닌 여러 막이 겹친 형태로, 캡슐 막이 한 겹씩 녹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성분이 방출되어 제품의 지속력과 흡수력을 높인다. 한마디로 다중층 리포솜 캡슐이 건조한 곳에 스스로 찾아가 수분을 공급한다는 뜻. 이제 데코르테의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 한 병에 담긴 리포솜 캡슐의 파워를 느껴볼 차례다.

피부 본연의 건강함을 되찾다

데코르테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는 겉으로 보나 투너처럼 보이지만 수분을 가득 머금은 수분 폭탄 에센스로, 피부가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해도 될 만큼 대용량 사이즈가 특징이다. 리포솜 캡슐 인에는 비파나무 잎 추출물과 부차브룸 뿌리 추출물을 함유한 복합제, PMZ(Potential Maximizer) 성분을 담아, 근본적으로 피부를 더욱 건강하게 가꾸주고 피부 자체의 컨디션을 끌어올려, 하루만 사용해도 충분히 아름다운 피부로 거듭날 수 있다. 촉촉한 워터 타입으로 보다 빠르고 신뜻하게 영양을 공급하는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는 매일 아침저녁 에센스 단계에 사용하며 화장실 뒷받까지 제품을 충분히 적셔 피부에 스며들도록 지그시 눌러주면 된다. 실제로 이 제품을 꾸준히 사용한 후 피부 컨디션이 일장하게 유지되었다. 또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를 바른 후 다른 피부 고민에 따른 에센스를 추가해도 좋다. 자연스럽게 더욱 유용 성분의 흡수력 또한 높여주기 때문. 또 에센스를 화장실에 충분히 적신 후, 얼굴에 얹어놓으면 수분 에센스으로도 활용 가능하며, 작은 미스트 공병에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를 넣어, 에센스 미스트로 사용하는 방법도 추천한다. 뿌리면 뿌릴수록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드는 여는 수분 미스트와는 달리, 이 제품은 건조한 피부에 수분과 영양을 이질없이 전달해줄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메이크업 후에도 각질이나 주름이 유독 도드라져 보이는 부위에 특특 가볍게 터치하면 각질을 잠재울 뿐 아니라 피부에 수분까지 더해, 물광 피부 연출도 가능하다. 이처럼 활용도가 높은 리포솜 트리트먼트 리퀴드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해 케어한다면, 맑고 탄력 있던 건강한 피부로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놀라운 경험은 매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길. 170ml 12만5천원 대, 문의 080-568-3111 에디터 이지연

editor's Pick

건조한 피부에 꼭 필요한 보습 제품부터, 이번 시즌 놓쳐선 안 될 신제품까지, <스타일 조선타일보>가 추천하는 가을 화장대 필수 아이템.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클레르도 보테** **공생도예** **일부아피르** 일명 '힐링' 페이스 마스크 팩이라 불리는 이 리사리안 마스크 팩은 애플차림 덩거 있는 1단계의 로션, 2단계의 에센스를 바른 후 미자리에 시트 마스크를 붙이는 독특한 형태의 3 in 1 제품. 이것 하면 추가적인 기초 케어가 필요 없고, 일회용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행자는 물론 건조한 기후에서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1세트 3만5천원. 문의 080-564-7700. *by 에디터 권유진*

베르비트 감미 브로우 메이크업 시간을 단축시키는 7특한 아이젠. 사용해보면 브로마시카라 중 가장 자연스럽게 발색되는 컬러가 인상적이다. 작고 얇은 브로마시가 내장되어 눈썹 모양에 맞게 한 줄 한 줄 빛어 정돈하면 따로 그리지 않아도 풍성하고 가려워진 눈썹을 연출할 수 있다. 3g 2만5천원. 문의 080-001-2363. *by 아시스턴트 김수빈*

클로린 망고 샴푸 휴가 이후 손실된 한 통을 다 써버린 매력적인 샴푸. 망고 성분을 함유해 자외선에 무색해진 모발을 즉각적으로 촉촉하게 해준다. 건조 전용 제품으로, 매일 사용해도 좋은 향이 일주일째 3회 집중적으로 트리트리트처럼 활용하면 더 효과적이다. 200ml 1만2천원. 문의 1899-4802. *by 에디터 배미진*

겐조키 모이스처라이징 스킨 가디언 가볍고 프레스한 텍스처로, 더도 덜도 말고 딱 유분감 없는 수분 크림을 바른 듯한 느낌을 준다. 타구나 무명을 염지하지 은은하게 피하는 화이트 로즈 향기. 지성 피부인 에디터에게 그야말로 어느 것 하나 누릴 데 없는 인생 수분 크림이다. 500ml 6만16천원. 문의 080-344-9500. *by 에디터 이지연*

샤넬 루주 일부르 인크 142 크레아티프 일단 샤넬에서 처음 선보이는 립 인크 타입이라 관심이 있다. 처음 받았을 땐 용기에서 보이는 컬러 그대로 입술에 표현되어 깜짝 놀랐다. 보통 립 인크 제품은 한번의 터치만으로 완벽하게 발색되지 않기 때문. 두꺼운 듯하면서도 살기좋게 입술에 밀착되며, 색이 꽤 오래 지속된다. 6ml 4만2천원. 문의 080-332-2700. *by 에디터 이지연*

실론 페이스타이트 집에서 반경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주파 피부 관리기. 열과 마 효과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놀랍게도 3일 사용하지 않자 뾰루지가 들어가고 볼 라인이 탄탄해지는 것이 느껴져서 신기했을 정도. 30대 이후 턱 라인은 물론 얼굴 전체, 볼 라인까지 탄력이 줄어드는 데 두려움을 느끼는 여성이라면 강력 추천한다. 55만원. 문의 080-246-1234. *by 에디터 배미진*

랑콤 피리자렌 립 크레용 M02 프라지 레드 입술에는 빈백이듯 미투리되는 글로시 타입이, 반대쪽에는 매트하게 미투리되는 텍스처가 워낙이다. 달콤과 실룩의 매력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이 듀얼 립 크레용 하나만 있으면 립 메이크업은 문제 없을 듯. 4.4g 4만2천원. 문의 080-001-9500. *by 에디터 이지연*

에스티 로더 글로벌 인티메이징 파워 스포트 크림 에스티 로더의 새로운 얼굴이 될 매력적인 크림. 텍스처가 부드럽고 풍성한 데다 흡수력도 뛰어나 여러 번 덧바르고 싶은 제품이다. 생량력이 뛰어난 모양이 씨앗 추출물을 담았다. 주름 개선 기능성 인종을 받아 인티메이징 케어에 더욱 효과적이다. 75ml 1만15천원. 문의 02-3440-2772. *by 에디터 배미진*

프라쉬 크림 앙베젠-수프림 페이스 세럼 수도원에서 수작업으로 정성스레 만든 페이스 세럼으로, 귀한 아홉 가지 뿌리 성분을 담았다. 피부 재생 연고라는 애칭으로 불릴 정도로 효과가 뛰어난 라인의 세럼인 만큼 피부가 붉어졌거나 뾰루지가 출몰했을 때 특별 발라주면 다음 날 아침 피부가 물라보게 진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0ml 37만원. 문의 080-822-9500. *by 에디터 권유진*

셀화수 연성 비디 크림 골과 차미버섯 추출물을 담은, 풍부한 텍스처가 매력적인 보디 크림. 끈적한 보디 제품을 기피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주름을 개선하는 인티메이징 효과, 즉각적인 보습으로 피부결 개선 효과가 뛰어나다. 200ml 8만원. 문의 080-030-5454. *by 에디터 배미진*

보타가 베네타 파르코 필라디아노 지난 4월 보타가 베네타 파르코 필라디아노는 글로벌 론칭 행사에 참석했을 때 시험한 여섯 가지 향수 중, 개인적으로 베스트 향으로 꼽은 1번 향수. 이른 아침 정원에 핀, 이슬을 머금은 메그놀리아의 향을 담은 프라쉬로 깨끗한 향이 매력적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포근하고 은은하게 남는 진향 역시 베스트. 100ml 37만원. 문의 02-6924-6572. *by 에디터 권유진*

인생로랑 꾸뛰르 칸투어링 팔레트 작고 가벼운 얼굴. 진정 시술만 가능한 것일까? 아니다. 칸투어링 메이크업의 마법과도 같은 터치기 있다면 얼토박이 작고 임 제적인 얼굴을 연출할 수 있다. 빛을 활성화하는 펠 피그먼트와 유분을 흡수하는 소프트 포커스 파우더를 함께 구성한 이 칸투어링 팔레트는 컬러가 뭉치거나 걸들지 않고 피부에 은은하고 자연스럽게 밀려누그러나 쉽게 칸투어링 메이크업에 도전할 수 있다. 6g 7만5천원. 문의 080-347-0089. *by 에디터 권유진*

에르보리안 더블 무스 클렌징 폼 펴밍하는 순한 풍성하게 피겨-요는 거품이 피부를 부드럽게 감싸듯 피부 노폐물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한 가지 힘을 더하자면, 에르보리안에서 판매하는 클렌징용 차를 곁의 스킨지와 함께 사용하면 것. 각질 제거는 물론, 피부 안색 개선 효과도 누릴 수 있다. 90ml 3만원. 문의 02-3014-2966. *by 아시스턴트 김수빈*



핑크 오일의 놀라운 피부 광채의 비밀
에디터는 오일 애호가이다. 한여름에도 다른 스카커에 생략하고 페이스 오일 하나만 가볍게 바를 정도로 시계절 내내 오일을 애용한다.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임에도 이토록 페이스 오일을 사랑하는 이유는, 스카커 루틴에 오일을 추가하고 나서부터 변들거리기는커녕 피부 속까지 촉촉해지는 것을 몸소 경험했기 때문. 일반적으로 오일 하면 변들거리고 끈적일 거라는 편견이 있지만, 지성 피부라고 해서 오일을 멀리할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맞는 오일로 적절히 유분을 공급하면 건강한 피부의 핵심인 황금 비율의 유수분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으니, 어떤 피부 타입이건 오일을 가까이하는 것이 좋다. 이렇듯 오일 마니아를 자처하는 민름 시중의 다양한 페이스 오일을 테스트해보고 하는데, 올해 출시한 여러 오일 제품 중 에디터의 레이드판에 포착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클레르도 보테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레디언트 멀티 리페어 오일이다. 하이엔드 코스메틱 브랜드인 클레르도 보테에서 출시한 제품이니 신뢰와 기대감이 높은 것은 당연지사. 게다가 평소 클레르도 보테의 라 크림을 데일리 케어로 사용하고 있어 함께 애용할 때 나타날 사너지 효과가 더욱 기대되었다. 투명한 핑크 보틀에 담긴 이 오일은 멀티라는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얼굴은 물론 헤어, 보디 등 건조한 부위임이 어느 곳이나 발라도 좋은 만능 오일이다. 스키프로 떨어뜨리면 목처럼 끈적이는 예상과 달리 물처럼 흐르는 가벼운 제형으로 마치 수분 크림을 바른 듯 피부에 촉촉하고 부드럽게 스며드는 점이 만족스럽다. 성분을 들여보니 아토티피 피부에 부족하다고 알려진 감마글리세린을 함유한 독자적인 리페어 오일 콤플렉스를 듬뿍 담아 피부에 24시간 수분을 공급하고 주름과 건조증, 거친 피부를 눈에 띄게 감소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더불어 코끝에 감도는 피오나와 오가드의 여성스러운 향은 신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특히 모발에 발랐을 때 하루 종일 향긋한 향이 은은하게 감돌아 헤어 퍼플로움으로도 손색이 없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하는 럭셔리 멀티 오일
오일을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이면 어느 단계에 오일을 사용해야 할지 마냥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클레르도 보테의 핑크 오일은 세안 후 혹은 크림이나 에센스 전 단계에 사용해도 좋은, 말 그대로 어떤 단계에 발라도 부담이 없는 제품이다. 멀티 오일인 만큼 활용법 또한 쉽고 다양인데,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은 먼저 향을 가볍게 음미한 뒤, 세안 직후, 혹은 크림이나 에센스를 사용하기 전에 양을 장도 손바닥에 덜어뜨려 체온으로 따뜻하게 데운 다음 얼굴 전체를 부드럽게 누르며 마사지해주는 것. 끈적이지 않기 때문에 심하게 건조한 부위에는 여러 번 덧발라도 좋다. 특히 세안한 후 바로 바르면 오랫동안 피부 수분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사용한 제품의 효능을 높여주는 부스팅 효과까지 얻을 수 있다. 보다 스페셜한 케어를 원한다면 얼굴을 포함한 목, 데콜테까지 오일을 바르고 머리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탄력있게 누르며 마사지를 하면 피로가 풀리고 안색 또한 맑게 개선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밖에도 샤워 후 몸에 물기가 남은 상태에서 보다 전체에, 쉽게 갈라지고 건조해지기 쉬운 모발 끝에, 가늘게 얹어낸 손톱의 큐티클에 발라주는 등 제품 하나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이는 진정한 멀티오일 틀림없다. 75ml 18만 원. 문의 080-564-7700. *에디터 배미진, 권유진*

magical Oil

이 핑크빛 오일은 직접 발라봐야 진가를 알 수 있다. 럭셔리 코스메틱 브랜드 클레르도 보테에서 선보이는 첫 오일인 민름 명성과 독자적인 기술력, 진귀한 성분을 아낌없이 담았기 때문. '멀티'라는 제품명답게 얼굴에는 물론 보디, 헤어 등 건조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위 어느 곳이나 발라도 되니, 올해를 단 하나의 오일을 선택한다면 바로 이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luxury Sportism

편하게 입으면서도 럭셔리한 멋을 추구하는 이탈리아 브랜드 페이(Fay). 본래 소방관들이 주로 입던 포 버튼 코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브랜드답게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아우터를 새롭게 선보인다. 페이의 2016 F/W 컬렉션 주 무대가 된 영화속 배경에서 선보인, 무비 디렉터들이 즐겨 입던 재킷에서 영감을 받은 '디렉터스 재킷'이 바로 그것.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더블 라이프 정신을 기반으로 한 페이

비즈니스와 캐주얼, 시티 라이프와 아웃도어 등 상반된 가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더블 라이프(double life)' 정신을 기반으로 한 페이. 실용성과 우아함을 추구하는 페이의 브랜드 철학은 컬렉션을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럭셔리하고 혁신적인 이탈리아인 특유의 다이나믹하고 유쾌한 요소를 클래식한 이미지에 꾸준히 접목하기 때문. 1970년대 말 미국 소방관들이 주로 입던 포 버튼 코트를 나일론과 코듀로이 소재에 4개의 메탈 호크가 달린 재킷으로 디자인해, 하이패션으로 만든 브랜드도 바로 페이다. 이후에도 페이는 바람막이 기능의 베스트를 더한 쇼트 코트를 개발하는 등 기능성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춘 대표적인 아이템을 선보였다. 코트와 재킷, 스웨터에 탈착 가능한 쇼트 코트는 방향과 방풍 기능 등 실용적인 부분을 더욱 강화해 어떤 기후 조건에도 구애받지 않고 입을 수 있도록 고안한 투인원(two-in-one) 제품으로, 1990년대 초반 남성 의류에 혁명을 일으켰다. 전통적인 맨즈 웨어 스타일에 스포티한 분위기를 혼합하는 혁신적인 변화를 추구한 페이는 딱딱하고 경직된 비즈니스 룩에 브랜드의 주 무기인 캐주얼한 터치를 가미한 컬렉션을 꾸준히 소개했고, 그 결과 글로벌 시장에 첫발을 내딛게 된다. 밀라노와 로마에서 단일 브랜드 매장을 내면서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한 이후에는 전 세계 고위 전문직 남성들에게 사랑받는, 세련된 우아함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다.

남성적인 에너지와 자유를 표출할 또 하나의 재킷

'트래블(Travel)', '시티 헌터(City Hunter)', '스타디움(Stadium)', 그리고 '드라이빙(Driving)'은 페이가 추구하는 다목적 디자인 철학을 반영한 대표적인 라인이다. 이 네 가지 키워드로만 봐도 브랜드 특유의 경쾌한 에너지와 발랄한 무드가 느껴진다.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의 모습은 물론, 비즈니스 회의, 지인들과의 파티, 자전거를 타거나 차를 운전할 때, 활동적인 스포츠 활동까지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페이의 디자인 철학이다. 여행이 곧 생활인 고객을 위한 2011년 S/S 컬렉션을 필두로, 페이에 영감을 주는 인물은 바로 세계 각지를 여행하는 기자, 작가, 영화감독을 비롯해 예측할 수 없는 날씨에 영향을 받는 이들도. 그들이 주로 선호하는 내추럴한 색감과 오래 입어 낡은 듯 빈티지한 느낌의 편안하면서도 견고한 옷에 주목한다. 특히 커다란 포켓과 넉넉한 수납공간 등은 브랜드 특유의 실용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F/W 컬렉션의 테마는 바로 다양한 영화속 배경이 되어온 미국의 광활한 산악과 평원, 그리고 드넓은 사막이다. 페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토마스 아벨라노와 로베르토 리몬디는 그 중에서도 코풀라와 레드퍼드, 니콜슨 같은 유명 영화 감독이 즐겨 입던 타임리스한 실루엣의 사파리 재킷에 주목했다. 그리하여 이번 시즌 키 룩이기도 한 디렉터스 재킷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부드러운 캐시미어 울로 제작한 이 재킷에 페이 특유의 실용성을 돋보이게 할 커다란 포켓과 목 가리개가 달린 찬을 덧댄 높은 칼라, 독특한 컷스 디테일 등을 가미했다. '디렉터스 재킷'이라 명명한 이 룩은 자연스럽고 멋스러운 이탈리아인 라이프스타일의 전형으로, 캐주얼하게 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격식을 갖추어야 하는 자리에도 어울리는, 페이가 추구해온 더블 라이프를 가장 잘 대표해줄 아이템임이 분명하다. 문의 02-3479-1649 에디터 **이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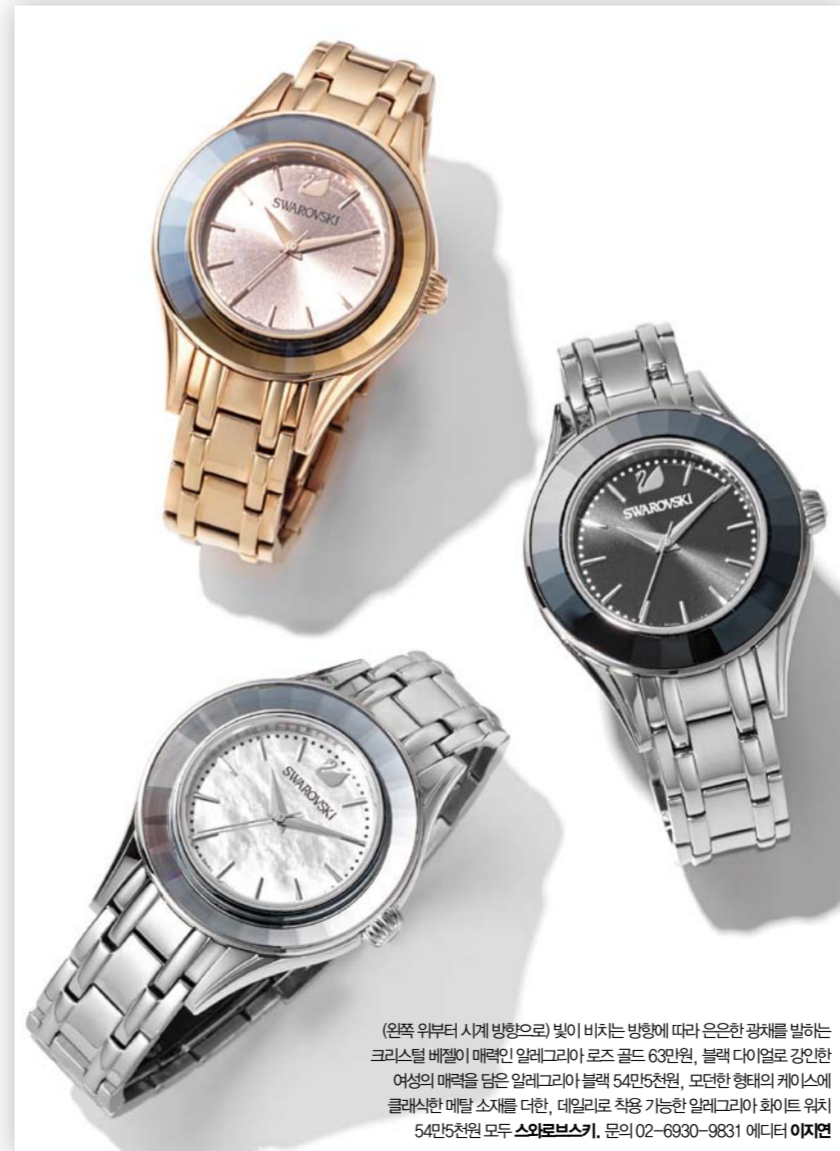


Sparkle on your day

어느덧 성숙한 여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여배우 박신혜. 스와로브스키의 새로운 뮤즈가 된 그녀는 이번 화보를 통해 순수한 아름다움과 시크함을 오가는 두 가지 반전 매력을 뽐냈다. 앞으로 더욱 빛날 그녀의 시간에 함께할 스와로브스키의 알레그리아 & 크리스탈린 오버 워치.



(오른쪽 위부터) 블랙 크리스탈 베젤로 시크함을 더한 크리스탈린 오벌 로즈 골드 블랙 54만5천원, 곡선 형태의 베젤에 약 1천7백 개의 크리스탈을 세팅한 크리스탈린 오벌 로즈 골드 화이트 54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 빛이 비치는 방향에 따라 은은한 광채를 발하는 크리스탈 베젤이 매력인 알레그리아 로즈 골드 63만원, 블랙 다이얼로 강인한 여성의 매력을 담은 알레그리아 블랙 54만5천원, 모던한 형태의 케이스에 클래식한 메탈 소재를 더한, 데일리로 착용 가능한 알레그리아 화이트 워치 54만5천원 모두 스와로브스키. 문의 02-6930-9831 에디터 **이재현**



모토그라피: 김영준(왼쪽), 박근주(오른쪽)

The Masterpiece in your lif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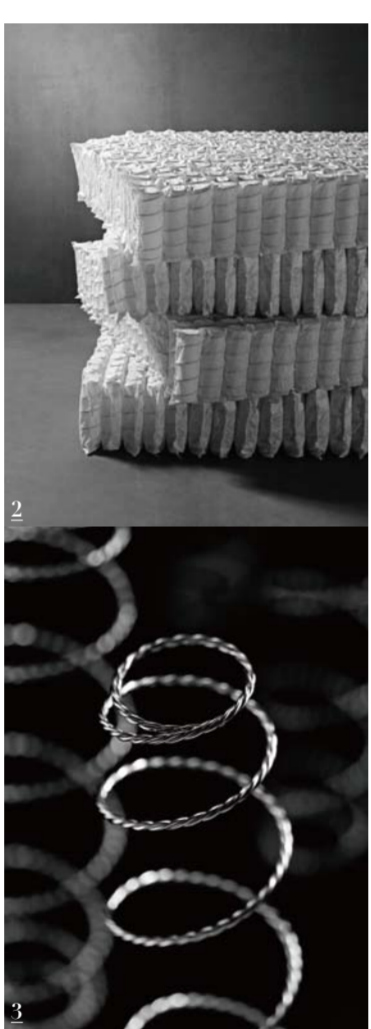
우리가 그토록 바라온 '꿀잠'으로 인도해줄 비결은, 높은 순간 온몸을 파고드는 천상의 편안함을 선사해줄 침대, 1870년부터 한 세기 반 동안 침대 역사를 만들어온 시몬스(SIMMONS)의 마스터피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Beautyrest BLACK)'에 있다.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할 하이엔드 매트리스, 뷰티레스트 블랙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에디터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잠'이다. 개운하게 잘 잤다고 느낀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매일 "피곤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에디터를 포함한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하고, 무엇보다 간절할 것이 바로 퀄리티 높은 잠, 즉 숙면이다. 3~4시간을 자더라도 폭 잤다고 느껴지는 양질의 수면을 얻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 몸을 지탱해 숙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트리스가 특별해야 한다.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할 천상의 편안함을 선사하는 매트리스를 찾는다면, 여기, 하이엔드 매트리스의 시대를 연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SIMMONS)'의 마스터피스 컬렉션 '뷰티레스트 블랙'에 주목할 것. 매트리스의 혁명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몬스의 독보적인 매트리스 설계 노하우를 집약한 이 컬렉션은 상위 1%를 위한 하이엔드 매트리스인 만큼 소재, 기술력, 디자인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부분이 없다. 특히 매트리스에서는 쉽게 만나볼 수 없었던 우아한 외관 디자인에서부터 남다른 가치와 오리를 발산하는데, 이는 영화 <위대한 개츠비>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1920년대 미국 상류사회 라이프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은 특별한 제품. 아르데코 양식 속 월 데코에서 모티브를 얻어 제작한 전용 프레임의 웅장하고 깊이 있는 디자인이 돋보이고, 그에 걸맞은 최고 퀄리티의 원목과 세련된 터치감의 패브릭을 매치해 프레임 자체가 공간에서 하나의 아트 피스로서 훌륭히 한몫을 해낸다. 하이엔드 컬렉션답게 겉으로 보이는 디자인도 아름답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노하우와 기술력을 담은 매트리스 설계 또한 독보적이다. 뷰티레스트 블랙만을 위한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이 바로 그것으로, 여기에 적용한 다양한 조닝 시스템과 레이어링 노하우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어드밴스드-포켓스프링은 항아리 형태의 포켓스프링 하나하나를 이탈리아산 특수 포켓스프링 커버로 개별 포장해 옆 사람의 뒤척임이 느껴지지 않도록 고안한 시몬스만의 독보적인 기술. 실크, 캐시미어, 리넨 등 약 50종의 최고급 프리미엄 내장재를 결합한 레이어링 구조와 삼중 나선 구조의 케이블 코일, 경도가 각기 다른 포켓스프링 배열로 단단한 지지력을 선사해 미세한 진동을 세밀하게 잡아내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그뿐 아니라 영국에서 만든 마이크로 포켓스프링과 벨기에에서 수입한 최고급 원단 등 최고 퀄리티의 자재와 세계 침대 시장에서 인정받는 기술력으로 더욱 완벽한 매트리스가 탄생했다.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컬렉션의 모든 매트리스는 국내 자체 생산으로 국가 공인 친환경 인증을 받았으며, 최고 기술력과 장인들의 섬세한 손길로 제작되어 해외 시장에 역수출될 정도로 그 어느 브랜드보다 탄탄한 기술력과 제품력을 자랑한다. 더불어 국가 공인 기준보다도 엄격하기로 소문난 시몬스만의 까다롭고 날카로운 1천9백36가지 내부 검증 절차는 브랜드의 진정성에 힘을 더해준다. 앞서 많은 설명을 했지만, 뷰티레스트 블랙은 직접 누워봐야 그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다. 매트리스에 누는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극강의 부드러운 편안함과 아주 미세한 진동도 느껴지지 않는 안정감은 그간 몸에 쌓인 피로를 한순간에 녹여주기에 충분하다.

침대를 넘어 인생을 만든다,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이 탄생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려 한 세기 반 동안 오로지 매트리스만을 연구해온 시몬스의 오랜 역사가 있다. 1870년 미국 위스콘신 주 케노샤에서 탄생해 '침대가 아닌 인생을 만든다'라는 철학과 완벽한 편안함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바탕으로 수면 연구에 앞장서고 있는 시몬스는 대중을 위한 엔트리 컬렉션부터 상위 1%를 위한 하이엔드



1 최고급 자카드 원단의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매트리스. 2 시몬스의 독보적인 기술이 돋보이는 조닝 시스템. 3 삼중 나선 구조의 케이블 코일로 이루어진 어드밴스드 포켓스프링. 4 트윈 연꽃이 돋보이는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BRBK9001 프레임. 베딩은 시몬스 케노샤용. 5 체내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신기술 소재인 셀라인트 다크 원단의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매트리스.

컬렉션까지 개인의 요구에 따른 다양한 매트리스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는 침대 브랜드이자 매트리스 역사의 산증인. 20세기 최고의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과 포드 자동차 창업자인 헨리 포드, 여성 정치가 엘리너 루스벨트 등 시대를 대변하는 세계적인 명사들이 시몬스 애찬론자를 자처할 정도로 시몬스 매트리스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는가 하면, 포시즌스, 신라, 반얀트리, W, 만다린 오리엔탈 등 글로벌 특급 호텔에서 사용하는 침대 브랜드로 채택되면서 침대 대명사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하고 있다. 1925년 세계 최초로 포켓스프링 제조 기술 특허를 취득해 침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것과 동시에 많은 이에게 편안한 잠자리를 선사했고, 침대의 혁신을 주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불령 공과 불령 편을 활용한 재치 있는 TV 광고를 선보여 당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는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시몬스의 전통과 고집을 바탕으로, 더 나은 수면의 질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오랜 노하우와 혁신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이처럼 시몬스가 한 세기 반 동안 집중해온, 인생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수면. 이는 그저 눈을 잠시 붙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닌, 바쁜 일상 속 꿀같이 달콤한 진정한 휴식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시몬스 뷰티레스트 블랙 컬렉션과 함께 당신의 삶의 질을 높일 타이밍이다. 문의 1899-8182, www.simmons.co.kr **에디터 권유진**



urban Spirit

지난 6월, 파리 맨즈 패션 위크 기간에 맞추어 몽블랑의 새로운 레더 컬렉션 '어반 스피릿'의 론칭 행사가 개최되었다. 클래식한 브랜드로 각인되어 있는 몽블랑에 보다 트렌디한 숨결을 불어넣을 진취적인 컬렉션이다. 몽블랑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레더 컬렉션의 데뷔 현장을 취재했다.



어반 스피릿 컬렉션의 메인 제품들, 브리프케이스와 메신저백, 백팩, 리포터 백까지 실용적인 구성이다.



1 파리에서 개최한 몽블랑 어반 스피릿 행사에 참석한 배우 로드리고 산드로, 몽블랑 CEO 제롬 랑베르, 이탈리아 배우이자 몽블랑의 친구인 루키 아르잔테로. 2 어반 스피릿 론칭 이벤트를 위해 두 가지 모델의 어반 스피릿 모토사이클 헬멧을 선보였다. 현대적인 느낌의 파포레오이드 레더와 빛을 반사하는 셀 코팅으로 제작했다. 3 비가 올 때 가방을 보호할 수 있는 스톰 캡(storm cap)에 세계 유명 도시의 지하철 노선도를 프린트했다. 4 몽블랑의 레더 장인이 직접 행사에 참석해 가죽 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선보였다. 5 어반 스피릿 리포터 백. 6 청장과 사켄트 구조를, 내온 조명을 비롯해 의외의 재료를 사용한 행사장. 스타일링하고 모험가적인 기질을 강조하는 새로운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인테리어이다. 7 어반 스피릿 컬렉션의 스물 여섯 명명 지갑과 지갑, 펜 파우치, 명함 지갑 바깥면에 포켓을 추가해 자주 사용하는 카드를 쉽게 꺼낼 수 있다.



몽블랑의 미래, 어반 스피릿 컬렉션

명품 브랜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히스토리를 언급하기 마련이다. 역사와 가치, 오랜 시간 동안 완성도를 지키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에 관한 스토리. 몽블랑(Montblanc) 역시 마찬가지다. 1906년 창립해 펜과 시계, 가죽 제품 분야에서 오랜 명성을 쌓았다. 많은 남성들이 품격의 상징으로 몽블랑의 아이템을 한 가지 정도는 소장하고 있을 것이다. 혹은 특별한 선물로 머릿속에 떠올려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클래식한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몽블랑에 지난 2년은 확실히 변화와 도약의 시기였다. 과거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미래로 나아가는 혁신의 키워드를 품었다. 여러 브랜드를 혁신적으로 도약시키며 전 세계 리더십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몽블랑의 CEO 제롬 랑베르(Jérôme Lambert)가 이 급격한 변화의 핵심이다. 클래식한 브랜드인 몽블랑의 히스토리를 지키는 동시에 전방위적으로 컬렉션을 확장하고 새로운 인물을 통해 에너지를 부여했다. 물과 불에 모두 강한 새로운 소재를 도입한 몽블랑 익스트림 컬렉션을 선보였고, 마크 뉴슨과 새로운 펜, 몽블랑 M을 출시한 데다 세계적인 영화배우 휴 잭맨, 그레이스 켈리의 손녀 샬럿 카시라기 등 새로운 앰배서더들을 선정해 이벤트마다 끊임없이 등장시켰다. 무엇보다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은, 독특한 아웃핏의 몽블랑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자임 카말이 완성한 '어반 스피릿(Urban Spirit)'은 몽블랑의 현재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레더 컬렉션이다.



젊음의 에너지와 실용성을 담은 새로운 레더 컬렉션

파리에서 첫선을 보인 몽블랑 어반 스피릿 컬렉션은 새로운 세상을 찾아 끊임없이 탐험하는 도시 여행자들의 주제로 젊은 에너지와 진취성을 담았다. 몽블랑 CEO는 "몽블랑 어반 스피릿 갤러리의 콘셉트는 일상의 탐험가들이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하며, 혹은 도시 안에서 늘 새로운 발견을 위해 여행하도록 하는 활동적인 마인드인 어반 스피릿을 떠올리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한다. 새로운 컬렉션 모든 제품의 코너 부분에는 지금까지 몽블랑에서 선보인 적 없는 과감한 사선 금속 장식을 가미해 시각적으로 변화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 남성 패션 위크 기간 동안 파리에서 론칭 이벤트를 개최한 것 역시 도시의 에너지와 역동적인 느낌을 고스란히 담기 위해서다. 어반 스피릿 론칭 행사장을 가득 메운 트렌디한 셀러브리티들도 파리는 매력적인 도시의 분위기를 그대로 전달했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등장 역시 몽블랑에서 새로운 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확인하게 했다. 서울과 런던, 뉴욕, 파리의 지하철 노선도를 담은 리미티드 에디션 스톰 커버를 더한 백팩 리미티드 에디션까지 선보였다. 물론 이러한 변화속에서도, 기능성과 제품의 완성도라는 몽블랑 고유의 가치는 고스란히 유지했다. 간결한 디자인과 최적의 편안함, 스타일한 저장 공간은 실제로 사용했을 때 더 큰 매력을 느끼는 몽블랑의 모든 제품과 동일인상이다. 군더더기 없는 라인업과 남성적인 형태, 몽블랑의 매력적인 로고까지. 브리프케이스와 여행용 더플백, 메신저 백과 리포터 백은 물론 지갑과 펜 케이스까지 남성들에게 필요한 22가지 제품을 한 번에 출시했다. 손잡이를 넣고 뺄 수 있는 서류먼트 케이스, 노트북 보관을 더욱 용이하게 만든 측면 케이스, 가방에 휴대폰을 넣은 후 헤드폰을 연결할 수 있게 고안한 작은 배려까지, 몽블랑 고유의 실용적인 디자인에 대한 세심함은 놀라운 정도다. 어반 스피릿 컬렉션은 모두 이탈리아에서 생산하는데, 제품의 정교함은 실제로 만져봤을 때 그 가치를 더욱 발한다. 세련되고 매트한 느낌과 부드러운 촉감이 특징인 이탈리아 레더는 가죽 제품으로 유명한 피렌체에 위치한 몽블랑 펠레테리아에서 장인들의 신중한 손길로 완성된다. 1백 년 이상 이어온 전통과 기술이 담긴 수공 제품을 매장에서 만나볼 수 있기에 몽블랑의 레더 제품이 오랫동안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펜과 시계, 가죽 제품까지, 몽블랑의 모든 제품은 품격과 실용성이 공존하고 정확성과 정교한 완성도를 보장한다. 탐험과 도전, 실용성은 몽블랑의 브랜드 정신을 담은 4810 워치 컬렉션, 해마다 브랜드의 가치를 더 느끼는 작가 에디션 만년필 컬렉션, 그리고 실용성과 탐험가의 기질을 강조하는 레더 컬렉션 등 모든 제품에 몽블랑의 이야기가 스며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반 스피릿과 같은 새로운 정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제품들도 새롭게 등장하기에 앞으로 몽블랑의 스토리는 더욱 풍성해질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파리 현지 취재)

SHOWROOM



칼프로렌



레트 바이티

바오 바오



에르메네빌도 제너



아이진바바



토즈



GABRIEL KANE DAY LEWIS, MORGANE POLANSKI



라코스테



바버리



살바토레 페라가모



란스미어

칼프로렌 소프트 리키 백 칼프로렌은 이탈리아산 스웨이드를 사용해 고급스러운 매력을 실린 소프트 리키 백을 새롭게 출시한다.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실루엣과 모던한 버클 장식을 가미한 소프트 리키 백은 수직형 컷팅 및 재단 과정을 거쳐 더욱 특별하다. 스트,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털 등의 장식을 꾸민 달착 가능한 스트랩을 통해 2가지 스타일로 연출 가능하다. 문의 02-545-8200

한성 레트 바이티 론칭 한성은 간결하고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해줄 신규 여성복 브랜드 레트 바이티를 론칭한다.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여성복으로 채운 '에이지리스(Ageless)' 브랜드로, 체형을 보완해주는 실루엣과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도시 감성, 화려한 컬러감, 그리고 자연스러운 시크함을 테마로 다양한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는 스타일을 제안한다. 현대백화점 입구 정문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49-5977

바오 바오 프리즘 메탈릭 백 바오 바오는 반짝이는 메탈릭 소재가 강렬하면서도 트렌디한 프리즘 메탈릭 백을 제안한다. 바오 바오를 대표하는 프리즘 라인의 A/W 버전으로, 움직임에 따라 변하는 형태에 맞춰 투톤으로 변하는 메탈릭 소재가 유니크한 무드를 연출한다. 가벼운 무게와 자유로운 셰이프가 매력적인 이 백은 퍼플, 실버, 옐로우 등 4가지 컬러로 출시한다. 문의 02-2231-6282

에르메네빌도 제너 첼토필리 셔츠 컬렉션 에르메네빌도 제너는 남성의 품격을 완성해줄 셔츠 컬렉션 '첼토필리(100F)' 셔츠 컬렉션을 소개한다. 최고급으로 알려진 이집트산 코튼 중에서도 최후의 마코 기제(Mako Giza)산 140핀 수 코튼 극세사를 원사로 사용했으며, 1cm당 1백 카운트의 촘촘한 밀도를 자랑하는 원단이 고급스러운 광택과 감촉을 선사한다. 수직주름 서비스를 통해 몸에 꼭 맞는 맞춤 셔츠로도 제작 가능하다. 문의 02-2240-6524

아이진바바 2016 F/W 광고 캠페인 아이진바바는 소프트한 색상과 미나랄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2016 F/W 컬렉션의 광고 캠페인 'Genuine I'을 공개했다. 파리에서 진행한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세계적인 포토그래퍼 빅터 드마셀리아가 촬영을 맡았다. 광고 캠페인의 모델 소피아 아렌스는 자연스러운 실루엣이 우아함을 지니는 아이진바바의 여성복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브랜드 특유의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잘 살렸다. 새롭게 선보인 2016 F/W 캠페인과 영상은 아이진바바 공식 웹 사이트(www.izzalbaba.c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6960-0702

토즈 2016~17 F/W 여성 광고 캠페인 토즈는 전설적인 패션 아이콘 3인의 모습을 담은 2016~17 F/W 여성 광고 캠페인 '타인리스 아이'를 공개했다. 트위키, 제인 버킨, 진 슈윙튼 등 시대를 초월한 스타일 아이콘의 특별한 순간과 함께 토즈의 새로운 액세서리인 더블-트, 스카프를 소개하며 시간이 차도 변하지 않는 토즈의 미학을 완벽하게 드러냈다. 문의 02-3448-8105

페이 2016 F/W 여성 컬렉션 페이는 캘리포니아의 트렌디한 여성에게 주목한 2016 F/W 여성 컬렉션을 소개한다. 이번 컬렉션은 낭만주의, 여성미, 스포츠 등 서로 다른 느낌을 주는 테마를 완벽하게 결합해 현대적이면서도 우아한 스포츠웨어를 보여준다. 페이를 대표하는 패션 아이템인 코트와 재킷에 플로럴 장식, 자수 등을 더해 이탈리아 패션 특유의 화려함을 강조했다. 페이의 2016 F/W 여성 컬렉션은 전국 페이 매장에서 만나 볼 수 있다. 문의 02-310-1678

라코스테 2016 F/W 광고 캠페인 라코스테는 브랜드가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캠페인 'Life is a Beautiful Sport'의 F/W 시즌 광고 캠페인을 새롭게 선보인다. 프랑스 파리를 배경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톰 모델 바사 무디와 마티아스 라우르데센이 펼친 테니스 퍼포먼스를 통해 브랜드가 추구하는 우아하면서도 스포티한 스타일을 표현했다. 전국 라코스테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789-4668

바버리 가죽 버클 토트백 바버리는 트랜치코트의 클래식한 매력을 담은 가죽 버클 토트백을 제안한다. 바버리의 아이코닉한 패턴 아이템인 트랜치코트에서 영



에르메스

감을 받은 이 가방은 큼직한 버클 디테일이 단연 돋보이며, 숏이자족으로 제작해 견고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넉넉한 크기와 스포츠를 편하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공간으로 실용성을 높였다. 블랙, 다크 핑크, 라임 스톤 등 총 6가지 컬러로 선보인다. 문의 080-700-8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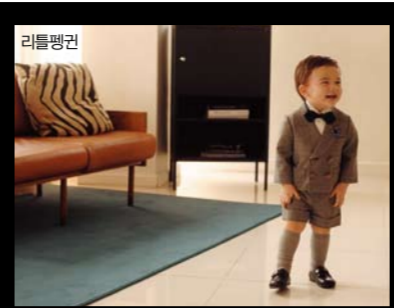
살바토레 페라가모 페라가모 미니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어린이를 위한 신발과 액세서리로 구성된 캡슐 컬렉션 '페라가모 미니'를 소개한다. 어린이 패션 신제품을 전시는 국제 박람회 피티 비모(Pitti Bimbo)에서 첫 선을 보인 특별한 캡슐 컬렉션으로, 3~8세 남녀 어린이를 위해 디자인했다. 페라가모의 대표 장신구 그로그 링 리본이 돋보이는 버리나 플랫 슈즈는 물론, 더블 겐치 오, 모자 등 브랜드를 대표하는 아이템으로 구성된다. 문의 02-3430-7854

란스미어 비탈레 바르베리스 카노니코 컬래버레이션 란스미어는 란스미어 한남 오픈 1주년을 맞아 원단 회사 비탈레 바르베리스 카노니코와 함께 특별한 행사를 진행한다. 비탈레 바르베리스 카노니코는

란스미어와의 협업을 통해 21 마이크로 울을 사용해 세 가지로 짠 원단 '3-ply Fabric'을 독점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대체로운 구성을 갖춘 이번 행사는 9월 말부터 삼성물산 패션 부문 페이스북(samsungfashion)을 통해 참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10월 7일 오후 7시부터 란스미어 한남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문의 02-795-4177

에르메스 2016 F/W 컬렉션 프레젠테이션 에르메스는 자연으로의 질주(Nature at Full Gallop)를 테마로 전개한 2016 F/W 컬렉션을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성공리에 마쳤다. 영국 출신 세트 디자이너 애나 본즈와 협업해 탄생시킨 이번 프레젠테이션 공간은 동물화가 로베르 달레의 작품 속 모티브를 다방면으로 활용했으며, 입구에 설치한 커다란 책 커비가 동화 속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선사해 이목을 끌었다. 모던한 스타일의 여성 컬렉션은 물론, 남성 컬렉션, 실크 컬렉션, 주얼리 컬렉션, 그리고 자연 모티브를 새긴 우아한 홈 컬렉션 등 다채롭고 풍성한 컬렉션을 선보였다. 문의 02-544-7722

LIFESTYLE



리틀팬틴



시몬스



SiVillage



아들리에 에르메스

리틀팬틴 클리우디 글렌 조슈아 수트 리틀팬틴은 내 아이를 위한 완벽한 첫 수트 클리우디 글렌 조슈아 수트를 제안한다. 클리우디 글렌 조슈아 수트는 최고급 메리노 울을 사용한 제1 트로페오 원단으로 제작한 것으로, 연한 그레이와 보카색으로 완성한 글렌 체크 패턴이 매력적이다. 1~2세 아이를 위한 사이즈로 선보이며, 재킷, 셔츠, 팬츠, 셔츠, 보타이, 부티에, 니삭스, 그리고 슈즈로 구성되어 완벽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문의 070-7628-0505

시몬스 케노사 홈 캐시미어 컬렉션 시몬스는 침실에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줄 침구 컬렉션 '케노사 홈 캐시미어 컬렉션'을 소개한다. 유럽에서 제작하는 100% 핸드메이드 제품으로, 생산지에서 직접 키운 캐시미어 실양의 부드러움 원사가 따뜻하면서도 부드러운 감촉을 선사한다. 침실을 우아하게 만들어 줄 이번 컬렉션은 플레그십 스토어인 시몬스 갤러리 외 공식 웹사이트(www.simmons.co.kr)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899-8182

신세계인터내셔널 SiVillage(에스아이빌리지) 론칭 신세계인터내셔널은 대체로운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 부티크 'SiVillage(에스아이빌리지)'를 공식 론칭한다. 패션, 뷰티, 라이프 등 30여 개의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구성되어, 온라인 쇼핑뿐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를 얻을 수 있다. SiVillage 공식 웹사이트(www.sivillage.com)를 통해 색다른 라이프스타일 쇼핑을 경험해볼 것. 문의 1644-4490

아들리에 에르메스 정금형 개인전 (개인소장품) 아들리에 에르메스는 제16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을 수상한 작가 정금형의 개인전 (개인소장품)을 개최한다. 정금형 작가 본인의 욕망을 투사하고 고집했던 다양한 인형과 도구를 수집하고 소장이라는 맥락으로,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며, 8월 26일부터 10월 23일까지 개최하며, 도선공원에 위치한 아들리에 에르메스에서 감상할 수 있다. 문의 02-3015-3258

JEWEL & WATCH

반클리프 아펠 리크 드 노아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은 대체로운 동물 모티브로 채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 리크 드 노아를 선보인다. 노아의 방주에 헌정하는 의미를 담아 탄생한 이 컬렉션은 기린, 원숭이, 향형새의 앵무새, 팡진 한 쌍 등 다양한 동물을 섬세하게 표현한 클립으로 구성되었다. 반클리프 아펠은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옆스 등 진귀한 원석을 사용해 생동감 넘치는 동물을 완성한 이번 컬렉션을 통해 대중의 뛰어난 기술력과 아름다움을 여실히 드러냈다. 문의 00798-852-16123

티파니 파베 티파니™ 세팅 티파니는 브랜드 탄생 1백30주년을 맞아 티파니™ 세팅의 역사를 기념하는 파베 티파니™ 세팅을 출시한다. 티파니의 창시자 찰스 루이스 티파니가 처음 선보인 티파니™ 세팅은 다이아몬드를 밴드 위로 올려 눈부신 광채를 극대화한 주얼리다. 티파니 탄생 1백30주년을 기념해 탄생한 파베 티파니™ 세팅은 센터 스톤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며, 전 세계 1백30개 한정판으로 선보여 더욱 특별하다. 문의 02-547-9488

까르띠에 라투스 드 까르띠에 까르띠에는 강렬하고 대담한 볼륨감이 돋보이는 주얼리 컬렉션 라투스 드 까르띠에를 선보인다. 강한 생명력을 지닌

선인장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컬렉션으로, 이 숭배를 연상케 하는 골드 구슬 장식을 사용해 안성하 풍부하고 구조적인 실루엣이 돋보인다. 옐로 골드, 라피드 라줄리, 그리고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의 조화가 강인한 느낌을 주는 이 컬렉션은 브레이슬릿, 네크리스, 그리고 링으로 구성된다. 문의 1566-7277

스와로브스키 알레그리아 워치 스와로브스키는 데일리 워치로 활용하기 좋은 2016년 신제품 워치 알레그리아 워치를 소개한다. 깔끔하고 유려한 원형 케이스가 모던한 느낌을 주며, 컷팅한 크리스털을 세팅한 베젤과 메탈 소재의 조화가 도화적인 감성을 선사한다. 다양한 스타일에 활용하기 좋은 이 시계는 화이트, 블랙, 골드, 로즈 골드 등 총 6가지 컬러로 출시하며, 전국 스와로브스키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1661-9060

루시에 상드 플레르 컬렉션 루시에는 영롱한 핑크 컬러 사파이어를 세팅한 주얼리 '상드 플레르' 컬렉션을 새롭게 선보인다. 꽃들의 재전이라는 의미가 담긴 상드 플레르 컬렉션은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진귀한 핑크 다이아몬드를 섬세하게 세팅해 은은한 광채와 사랑스러



루시에



스와로브스키



티파니

까르띠에

우 무드를 풍긴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핑크 사파이어 버전은 기존에 소개한 핑크 다이아몬드 버전보다 더욱 선명한 핑크 색상을 자랑하며,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총 13피스 구성되며, 전국 루시에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512-6914

불가리 2016 뉴 워치 프레젠테이션 불가리는 2016년 신제품 워치와 함께 컬래보레이션, 하이 주얼리 워치를 소개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시계 매이인 바젤월드에서 소개한 하이엔드 컬래보레이션 워치를 전 세계로 소개하며, 블랙 컬러를 사용해 모던하고 강인하게 재탄생한 '옥트 울트라 네로 피에르 푸르비옹', 극미조와 시계를 결합하고 정교하게 표현한 다이얼이 인상적인 여성 컴플리케이션 워치 '루치아 일 자미르노 파르디소'도 만나 볼 수 있었다. 또 워치 컬렉션과 함께 아이웨어, 핸드백, 실크 스카프 등 우아한 매력의 2016 F/W 액세서리 컬렉션을 함께 소개하며 불가리의 장인 정신과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문의 02-2056-0171



불가리

코스메 데코르테 AQMW 베이스 메이크업 컬렉션 코스메 데코르테는 은은한 윤광을 더해줄 메이크업 컬렉션 'AQMW 베이스 메이크업 컬렉션'을 새롭게 출시한다. 자연스러우면서도 우아한 진주빛 광채로 피부를 화사하고 투명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정돈해주는 AQMW 칸다싱 베이스, 윤광을 더해주는 AQMW 칸다싱 오일 베이스, 밀착감이 뛰어난 AQMW 엘라그트 글로우 파우더 파운데이션 등 총 5종으로 구성된다. 문의 080-568-3111

라 메르 모이스차라이징 소프트 로션 라 메르는 가벼운 텍스처에 풍부한 영양을 담은 모이스차라이징 소프트 로션을 선보인다. 라 메르를 대표하는 크렘 드 라 메르 컬렉션의 신제품으로, 해초 발효 액, 미러를 브로스의 영양이 담겨 있다. 수백만 개의 미

세한 로션 캡슐이 피부에 가볍고 빠르게 스며들며, 노화 케어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전국 백화점 라 메르 매장에서 판매한다. 문의 02-3440-2775

플레드보 로레 라디언스 멀티 리페어 오일 플레드보 보트는 신뜻한 사용감이 돋보이는 멀티 오일 라디언스 멀티 리페어 오일을 제안한다. 감미로운 향을 함유한 독자 오일 콤플렉스가 피부를 촉촉하고 매끄럽게 가꾸며 즉각적인 주름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 얼굴은 물론, 보디와 헤어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바르는 순간 감도는 피오나와 오카드의 향기로운 향이 활력을 불어넣는다. 문의 080-564-7700

발렌티노 우모 인텐스 발렌티노는 강렬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남성 향수 '우모 인텐스'를 새롭게 출시한다. 블랙 컬러 유리 보틀이 남성적인 매력을 지니는 우모

인텐스는 기존 발렌티노 우모에 강인하고 선수열한 느낌을 더한 것이 특징. 시원하고 상쾌한 클라리 세이저와 안티인 향초로 사조해 아이리스와 톱가 빈의 부드러움으로 이어지다가 블랙 가죽과 바닐라 빈의 거친 느낌으로 마무리된다. 문의 02-3443-1805

SK-II R.N.A. 파워 아이 크림 SK-II는 눈가의 탄력을 끌어올려줄 아이 크림 R.N.A. 파워 아이 크림을 출시한다. 뛰어난 안티에이징 효과를 자랑하는 에이징 케어 라인 R.N.A. 파워 시리즈의 신제품으로, 농축 피타라™, 가수분해한 콩 단백질, 효모 단백질 결합한 R.N.A. 콤플렉스가 피부의 빈틈을 촘촘하게 채워 탱탱하고 눈가를 완성해준다. 또 SK-II 매직을 방문하면 눈가 피부의 탄력을 체크할 수 있는 피부 카운슬링 시스템을 통해 피부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다. 문의 060-023-333



코스메 데코르테



라 메르



플레드보 보테

BEAUTY

FASHION

RALPH LAUREN



RALPHLAUREN.COM/COLLECTION

SEOUL DOSAN PARK Sinsa-dong 631-34 02 545 8200